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과 미적 체험 활동 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eaching of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through Constructivist Approach in the Fine
Arts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채 유 희

2008년 8월

석사학위논문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과 미적 체험 활동 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eaching of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through Constructivist Approach in the Fine
Arts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채유희

2008년 8월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과 미적 체험 활동 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eaching of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through Constructivist Approach in the Fine
Arts Education**

지도교수 오 재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채 유 희

2008년 5월

채유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6월

국문초록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과 미적 체험 활동 지도방안 연구

채 유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오 재 환

미술과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과 중의 하나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저에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성주의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학습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기존의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재구성해 간다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심미적인 태도와 미적 안목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간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적 체험’은 미의식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모든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향수하는 미적 체험을 미술교육을 통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경험을 수업 현장으로 끌어들이 흥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 사진, 동영상, 작품집 등을 준비하여 관찰, 탐색, 비교, 조사, 수집 활동과 함께 발표, 문장화,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 체험 영역의 지도를 위하여 미술 교과서의 내용 체제와 분석을 통해 4학년 미술과 학습 내용을 영역별로 재구성 하였으며, 미적 체험 탐색을 위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단원과 학습내용에 따른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폭넓은 미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수업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업 모형, 구성주의 수업 모형 등을 살펴보았다.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미적 체험 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과정 안은 구성주의적 학습모형을 기초로 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미술 활동을 통해 구성된 지식을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구성주의적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학습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학습자 주도적인 미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하여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간접 체험을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요어 : 구성주의, 미적 체험, 미적 체험 활동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 연구의 제한점	4
II. 구성주의와 미술교육	5
1. 구성주의 이해	5
2. 구성주의 학습이론	9
3. 구성주의와 미술교육	13
III. 미적 체험 활동의 이해	22
1. 미적 체험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22
2. 미적 체험 활동의 이해	25
가. 미적 체험 활동의 필요성	25
나. 미적 체험 활동의 특징	27
다. 생활 속의 미적 체험 활동	33
라. 교사의 역할	34
IV.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학습 지도 방안	36
1. 제7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36
가. 미술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분석	36
나. 초등학교 4학년 미술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39
2.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지도 방향	44

가.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자료	46
나. 미적 체험 탐색 활동 내용	51
다. 미적 체험 활동 학습 형태	52
라. 미적 체험 활동의 평가	54
3.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수업의 실제	55
가. 미술과 수업 계획 및 과정	55
나.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탐색	56
다. 구성주의적 수업 모형	60
라. 구성주의적 접근의 미적 체험 수업 모형 구안	64
마. 구성주의적 접근의 미적 체험 수업 모형 구안 적용	66
V. 결론	89
참 고 문 헌	92
ABSTRACT	94

표 목 차

<표Ⅱ-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6
<표Ⅵ-1> 3, 4학년·영역별 미술 교과 내용	37
<표Ⅵ-2>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 미술 교과 내용	38
<표Ⅵ-3> 4학년 미술과 영역별 연간 시간 운영 계획	40
<표Ⅵ-4> 미적 체험 영역의 자연미와 조형미 분석	43
<표Ⅵ-5> 재료 활용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45
<표Ⅵ-6> 미적 체험 영역 학습 요소 분석	46
<표Ⅵ-7>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자료	47
<표Ⅵ-8> 미적 체험 탐색 활동 내용	51
<표Ⅵ-9> 교수-학습 단계	57
<표Ⅵ-10>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체제	58
<표Ⅵ-11> 다인수 학급에서 소집단 구성을 이용한 수업 모형	60
<표Ⅵ-12> 박영배의 구성주의적 수업 모형	62
<표Ⅵ-13> 미적 체험 활동 수업 모형	64
<표Ⅵ-14> 자연미 교수·학습 과정안	66
<표Ⅵ-15> 조형미 교수·학습 과정안	74
<표Ⅵ-16> 자연미, 조형미 교수·학습 과정안	83

그림 목 차

[그림 VI-1]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색 학습지	69
[그림 VI-2]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 학습지	70
[그림 VI-3] 춘난수조-노수현	71
[그림 VI-4] 지중해의 풍경-뒤피	71
[그림 VI-5] 추경-김은호	71
[그림 VI-6] 잔 다르크의 거리-위트릴로	71
[그림 VI-7] 제주의 봄 유채꽃	71
[그림 VI-8] 제주의 여름 바다	71
[그림 VI-9] 여름 한라산 계곡	72
[그림 VI-10] 여름 한라산	72
[그림 VI-11] 제주의 가을	72
[그림 VI-12] 경복궁의 가을	72
[그림 VI-13] 겨울 한라산	72
[그림 VI-14] 벌레를 물고 있는 까치	72
[그림 VI-15] 작품 감상 학습지	77
[그림 VI-16] 생활주변에서 찾은 선과 형 관찰 학습지	78
[그림 VI-17] 미술작품에서 찾은 선과 형 관찰 학습지	79
[그림 VI-18] 내소사 대웅보전 꽃 창살	80
[그림 VI-19] 구성8-간딘스키	80
[그림 VI-20] 흑, 백, 적의 구성-몬드리안	80
[그림 VI-21] 제주 절물의 숲길	80
[그림 VI-22] 불꽃 축제	80

[그림 VI-23] 서귀포 바다	80
[그림 VI-24] 수렴도-고구려	81
[그림 VI-25] 연속된 하루-뒤뉘페	81
[그림 VI-26] 돌의 단면	81
[그림 VI-27] 라일리 작품	81
[그림 VI-28] 나뭇가지의 선	81
[그림 VI-29] 끝없는 리듬-들로네	81
[그림 VI-30] 상상의 세계 미적 체험 학습지	86
[그림 VI-31] 나와 마을-샤갈	87
[그림 VI-32] 창문 너머 파리의 모습-샤갈	87
[그림 VI-33] 곡예사-샤갈	87
[그림 VI-34] 기억의 영속성-달리	87
[그림 VI-35] 피레네 성-마그리트	87
[그림 VI-36] 카탈루냐의 풍경(사냥꾼)-호안 미로	87
[그림 VI-37] 황룡도	88
[그림 VI-38] 운룡도	88
[그림 VI-39] 호작도	88
[그림 VI-40] 방아 찧는 토끼	88
[그림 VI-41] 까치호랑이	88
[그림 VI-42] 봉황도	8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국제화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활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 의식의 변화와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미술과 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술과 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p. 97).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 교육은 ‘미술을 통한 인간 교육’이다. 예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을 도구화하여 인간의 성품과 정서, 그리고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술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미적 체험에 초점이 모아지고, 아름다움을 통한 사람됨에 초점이 모아지며, 아름다움을 통한 사람됨에 의미가 주어진다. 그리고 개인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와 자연에서 그 의미를 찾고 새롭게 바라보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간다. 미술과 교육은 예술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예술적인 측면은 주로 표현이나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측면은 미술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정서성, 창조성 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으로서의 미술과 교육은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로서 일반 교육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예술적인 측면을 조화시켜 나가는 교과이다.

제 7차 미술과 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

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미술교육과 지도방법을 답습하고 있어 새로운 의지의 미술과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먼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특히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과는 거리가 먼, 교사의 일방적 주도권이 앞서는 미술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습자의 개별적 관심이나 수준은 무시하고 일률적이며 세부적인 교육과정으로의 획일적이고 객관주의적인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세계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미술 교사의 전공에 그 비중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주의적 인식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조작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해주며, 학습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활동 범위를 다양화 시키며 활동과정을 통하여 흥미와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변별화된 교육여건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교사 중심이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술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미의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적인 안목은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흥미에 기인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미술 교육을 위해서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미술과 교육에서는 ‘미술 교과는 개인의 심미적인 감상력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며 표현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과’로서 실제적인 표현 활동에만 강조를 두는 전근대적인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경험에 따라 미적 체험, 표현, 감상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학습자 자신의 사고나 이해 표현 경험을 중시하는 미술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술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과 경험을 수업 현장으로 끌어들이 흥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 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전개 방안을 구안·적용하며, 미적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미적 태도와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미적인 안목을 신장시키는데 그 필요성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기존의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재구성해 간다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향수하는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지도를 통해 심미적인 태도와 미적 안목을 높이고 전인적 인간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구성주의를 이해하고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술 교육의 필요성과 미적 체험 활동 지도의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미적 체험의 본질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활동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 미술과 지도 내용을 분석하고 미적체험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미적 체험에서 학습 교재가 될 수 있는 관련 대상을 탐색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섯째, 미적 체험 활동 중심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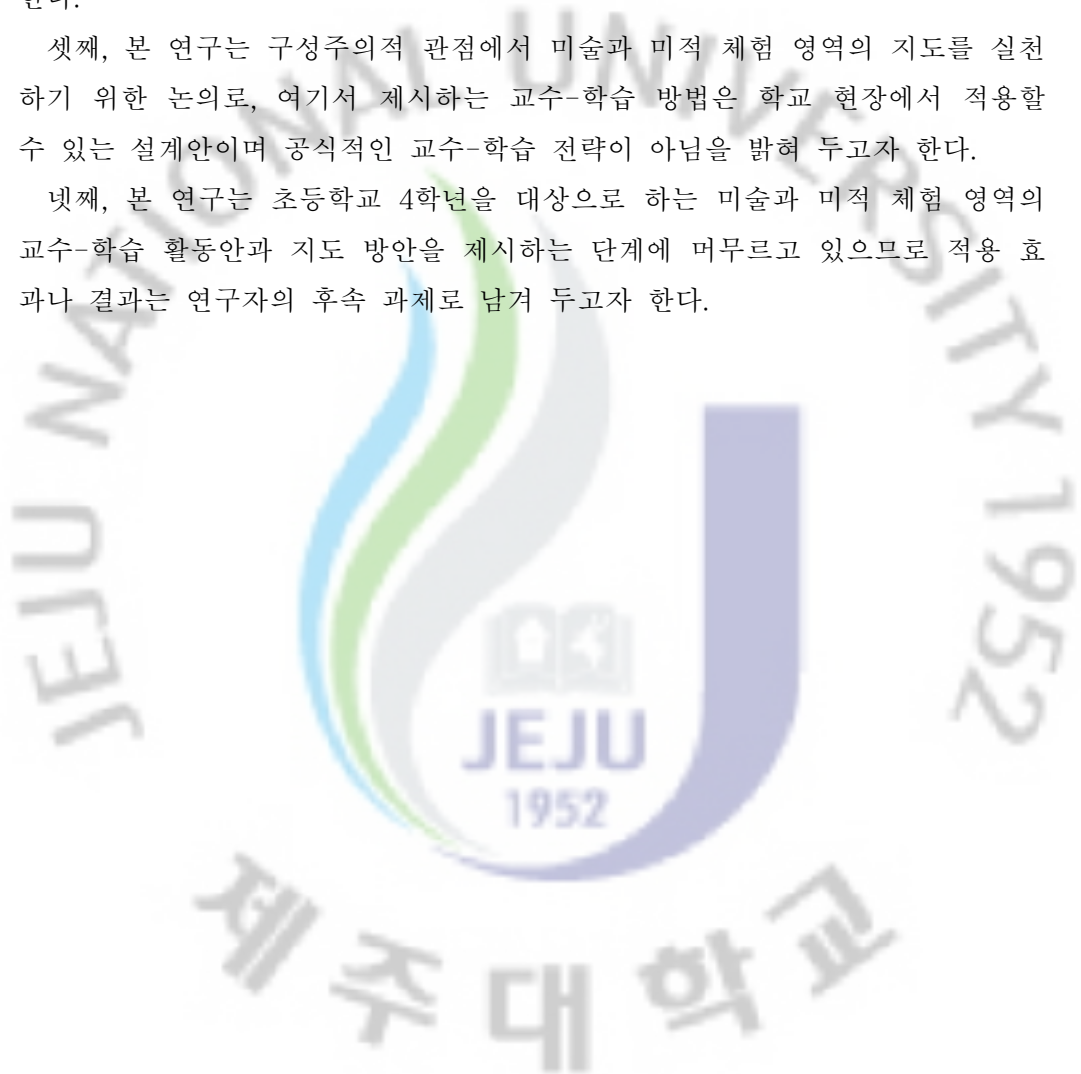
본 연구는 미적 체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며, 연구의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미술교육의 미적 체험 영역의 지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진과 인터넷상의 사진 자료로 미적 체험 활동을 할 때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술과 미적 체험 영역의 지도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로, 여기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안이며 공식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과 미적 체험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안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적용 효과나 결과는 연구자의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Ⅱ. 구성주의와 미술교육

1. 구성주의 이해

구성주의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를 지배했던 논리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로 대표되는 이른바 객관주의 인식론에 대안적 인식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의 핵심활동인 교수-학습 영역에서도, 기존의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이론들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의 형성과 습득을 개인의 인지작용과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비추어 설명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구성주의는 단순히 상황학습, 인지도제 학습, 문제 중심 학습 등과 같은 새로운 수업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구성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시도이자 방법으로 구성주의의 기본 가정을 수용하고 있다), 학습의 본질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객관주의적 견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조영남, 1998, pp. 152-157).

전통적 교수-학습관은 근본적으로 객관주의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객관주의는 진리 또는 지식은 이를 활용하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로 보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 반면 구성주의는 주관주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의 능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점에 있어 조영남은 “학습은 지식의 단순한 획득과 재생산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구성적 과정이며, 주어진 상황에서의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다.”라고 주장하며 전통적 교수-학습관에 내재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주요 영역에 따라 <표Ⅱ-1>과 같이 요약, 비교하였다.

<표Ⅱ-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인식론 비교대상	객관주의		구성주의	
실재(지식)	인식주체와 독립되어 외부에 존재		마음의 산물로 인식주체에 의해 결정	
의식	상징의 처리자, 자연의 거울		상징의 구성자, 자연의 해석자	
사고	외부 실재를 반영, 실재에 의해 통제		지각과 구성에 근거하며 신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장	
의미	인식주체와 독립		인식주체에 의해 결정	
상징	실재를 표상, 외부	실재의 내적 표상	실재를 구성하는 도구, 내부 실재의 표상	
최종목표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지식 추구	맥락에 적합한 의미 구성	
대표 유형	행동주의	인지주의	개인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	외현적 행동의 변화	인지구조의 변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의미 구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학습자관	외현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학습자관	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동적 학습자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학습자관	
교육과정	교과서 중심의 기본 기능 강조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구성 활동 강조	
교수	지식과 정보의 전달	지식과 정보의 전달 또는 발견	개인적 이해를 위한 사고 안내	지식의 공동 구성
교사의 역할	관리자, 감독자	정보처리 활성화	촉진자, 안내자	촉진자, 안내자 공동 참여자
학습자의 역할	정보의 수동적 수요자, 청취자, 추종자	정보의 능동적 처리자	의미의 능동적 구성자, 산출자, 설명자, 해석자	의미의 능동적 공동 구성자, 산출자, 설명자, 해석자
핵심 개념	자극, 반응, 강화	정보처리, 정교화	개인의 구성적 과정	사회, 문화적 동화
주요 수업전략	연습과 피드백	정보처리 전략	유의미한 아이디어와 자료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풍부한 학습기회 제공	유의미한 아이디어와 자료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풍부한 학습기회를 학습자와 공동으로 구성
주요 매체	다양한 전통적 매체와 CAI	컴퓨터에 기초한 수업	인터넷, 마이크로월드, 구성도구	
평가	양적 평가, 총괄적 평가 강조		질적 평가, 형성평가 강조	
주요 이론가	Skinner, Thorndike	Bruner, Ausubel	Piaget, von Glasersfeld	Vygotsky, Rogoff

객관주의에서는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실재가 존재하며, 지식은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식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설명체계이다. 이러한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인간의 경험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객관주의에 근거한 교수 활동에서는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과 객관적인 평가에 집중하게 된다.

구성주의가 객관주의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인간의 지식 습득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인데, 이에 대해 구성주의는 지식이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구성 된다'고 본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인간에 의해 부여되고 구성되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특정한 사상(event) 혹은 개념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옳은 의미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 노력하는 하나의 정확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학습자들이 모두 각기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지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동일한 경험을 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달 받을지라도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과 해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전달한 내용이 같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과 형태의 이해와 혹은 기능의 틀을 지닐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전제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객관주의가 교육의 최종 목표를 진리의 추구에 두는 반면,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현실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면 그것이 진리, 지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의 최종 목표를 적합성·적응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킨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인지하는 주제의 행동과 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경험의 장과 잘 부합하기만 하면 지식으로서 적합하고 적응력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객관주의에서는 지식의 특성을 초역사적, 우주적, 초공간적 진리로써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상황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산물로 본다(김성곤, 1998)

즉, 개인은 어느 특정 사회에 속하며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개인은 본인의 특정한 사회적 경험

과 배경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을 가하면서, 주어진 사회현상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간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인지적, 사회적 요소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식의 보편적, 일반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객관주의에서의 절대적 진리나 지식이 아니다. 대신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면 그것을 진리요 지식이라고 보며, 이런 지식과 진리를 구성해 나가는 것과 그 과정이 구성주의의 최종 목표가 된다(강인애, 1997)

행동주의를 포함한 전통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사, 학생의 역할, 수업 전 학생의 상태, 학습의 결정 조건, 학습에 대한 관점, 지식형성의 관점 등을 보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전통적 관점에서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이며, 학생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다. 수업 전 학생의 상태는 백지 상태이고, 쉽게 대치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학습 결정 조건은 외부적 상황으로 교사, 교실, 교과서, 실험 등이며, 학습에 대한 관점으로 백지 상태에 있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식 형성의 관점은 외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며 학습자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을 구성하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학생은 지식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수업 전 학생의 상태는 선행 경험에서 기초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상태이며, 학습의 결정 조건은 전통주의에서 본 외부적인 학습 상황과 함께 학생의 선행 경험에 기초한 기존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관점은 기존 개념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이며, 지식 형성의 관점은 각 개인의 내적 작용에 의하여 지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변영계, 2005).

즉, 구성주의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학습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은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에 관한 학습이론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개별적 체험과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고 본다.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의한 주요 교수·학습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지적 도제이론(Cognitive apprenticeships)

인지적 도제 이론은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인용되는 모델로, 지식 구성이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상호관계에 의한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피아제보다는 비고츠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강인애, 2002, p.218), 전문가(교사)와 도제(학생)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 구성활동에 의해 고등정신 능력을 학습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인지적 도제 모형은 지식, 학습, 전문가의 인지과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지식은 항상 상황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특정 사회집단으로의 문화적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서 과제, 과제를 풀 수 있는 각 특정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지적 과정과 활동의 틀이 잘 짜여 지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새로운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기능적인 해결을 모색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지적 도제이론은 교사(전문가)와 학생(견습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 사회집단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실제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학습을 말한다(변영계, 2005).

인지적 도제 모형은 예술, 의학, 법률계통의 분야에서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전통적인 도제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이론으로 전문가가 초심자에게 시범을 보임으로써 일을 가르치며 스스로 잘 하게 되면 전문가는 점차적으로 도제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의 이론이다. 따라서 인지적 도제 모형은 특정사회 집단에서 필요한 실제 과제의 문제해결 과정을 전문가가 시범해 보이는 '시연단계(modeling)',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적 틀을 제시하는 '교수적 도움단계

(scaffolding)',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적 도움의 중지 단계(fading)'의 과정을 도입해서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사회 집단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실제적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학습해 간다.

인지적 도제이론에서는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고 배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학습자의 내부 인지 작용과 활동을 자극하는 지속적인 자아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아성찰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실제 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조정하며 또한 전문가의 행동과 비교해보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 실지로 실행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제한적 시각을 넓힌다. 그러나 인지적 도제모형은 다른 모형과 달리 객관주의적 색채를 지닌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표준화된 연산법', '체계적 과정', 그리고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구성주의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체, 즉 학생들의 경험적 지식과 그들의 관점에 대한 가치부여와 존중이라는 전제와는 모순이 된다.

나. 상황적 학습모형(Anchored Instruction)

상황적 학습 모형은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인지적 성찰과정과 그런 능력의 개발을 중요시 한다. 즉,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형성 과정부터 시작하여, 문제 해결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학생 주도적 학습 모형이다. 인지적 도제이론과의 차이점으로는 상황적 학습 모형은 미리 구조화되거나 정형화된 틀 안에서 제공되는 학습 환경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되어 복잡하고 탐구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시한다. 이때 가능한 복잡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활동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상황적 학습 모형은 복잡한 문제를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학습 효과와 연결해서 학습자들과 교사와의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인지적 도제모형에서 말하는 협동학습은 전문가의 인지적 모형과 비교했을 때 초보자로서의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전략이나 견해들이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반면에 상황적 학습모형에서 말하는 협동학습이란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각기 다양한 해석과 접근방법을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개인적 견해와 사고의 틀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서로 다른 견해와 사고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밝힐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이끌어 가는 기술도 익히며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이끌어 가는 기술도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적 도제이론의 경우는 교사는 전문가 혹은 그 학습상황의 중심인물로서, 문제해결의 기본 인지적 틀을 제시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에 상황적 학습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인지적 도제이론에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은 물론, 더 나아가 학생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경험적 지식과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동료 학습자로서의 역할도 포함한다.

결국, 상황적 학습모형은 학생들의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과 관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충분히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탐색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의미에서의 학생 주도적, 학생 중심적 학습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인지적 유연성 모형(Cognitive Flexibility)

인지적 유연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식의 특성과 지식의 구조 형성 과정에 관한 것이다. 지식의 단순한 일차원적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다원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지식을 제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황 의존적인 쉐마(지식구조)의 연합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인애, 1997)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 따르면 개략(epitome)이나 명제(generality)와 같은 명분 아래 단순화, 세분화, 일반화된 형태를 접근하려는 전통적인 교수 학습 원칙으로는 복잡한 성격의 지식들, 예를 들어 모든 고급 지식이나, 인문사회 계통의 지식의 특성을 제대로

전달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전통적 이론에 의거해 학습하다 보면 단지 단순하고 사전에 규명된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만을 강조하게 되고 나아가 결코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틀로서는 가르칠 수 없는 분야의 지식을 순전히 교수적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지식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단순한 지식들이 심각할 정도로 학습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지식을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며, 상황에 기초한 쉼마의 연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교수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주제 중심의 학습(theme-based research), 나)학생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을 지닌 과제로 작게 세분화(bit-sized chunks), 다)다양한 소규모의 사례들(mini-cases)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여러 지식의 범주를 넘나들고 연결 지으면서 상황적 요구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지속적으로 비정형화된 지식구조를 다루고, 복잡하면서도 비 규칙성이 깃들인 고급 지식들을 접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비순차적이고 다원적 지식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임의적인 접근학습(random access instruction)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전통적 교수학습에서 말하는 복잡한 지식의 단순화와 세분화라는 전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며, 복잡하고 세분화될 수 없는 지식을 임의적 접근학습 전략을 통해 습득하고 그 결과 상황과 문맥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지니게 된다. (변영계, 20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 나름의 다양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지적 도제이론”과 “상황적 학습모델”이다. 이러한 학습모델은 학습목표에 따라 실제 교수-학습 환경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결정된다. 인지적 도제이론에서는 학습상황의 중심인물로서 문제해결의 기본 인지적 틀을 제시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 되었고, 상황적 학습모델에서는 인지적 도제이론에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경험적 지식과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해

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동료학습’로서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도제이론과 상황적 학습모델의 이론적 공통점은 특정 사회 집단의 문화적 동화, 어떤 특정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을 요구하고, 실제성이 깃들인 복잡하고 비주요적인 과제 해결을 통하여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학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과정은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상황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강조한다.(강인애, 2000, p.141). 앞에서 살펴본 구성주의 학습모형에서 ‘인지적 도제이론’과 ‘상황적 학습모델’에서도 특정 ‘상황’을 기반으로 한 학습환경과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강조하였다.

3. 구성주의와 미술교육

미적 가치 판단과 구성주의는 진리가 객관적인 실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 재구성되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성주의는 학습자들에게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의 교육을 강조하는 현대교육에서 지식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종래의 미술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인 활동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는 미술교육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는 미술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한 영역인 미적 체험 활동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미술교육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시대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미적경험을 통하여 미의식, 개성 및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수준, 관심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경험과 관련지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인 미술교육이어야 한다.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미적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통합적 교육활동이라는 면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교육이론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교과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미술교육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고등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미적체험을 바탕으로 한 미적체험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교수-학습 내용 구성 체제를 전체에서 부분으로 접근하여 총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인간 형성, 또는 전인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고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전인이나 자아실현이라면 구성주의 미술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은 함축하여 ‘미적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미’는 전통적인 좁은 의미의 미가 아니라 자아 표현과 시지각, 자유 속의 질서, 개성과 창의성, 아름다움과 즐거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미적 인간을 기르는데 미술교육을 통한 미적 안목의 육성, 조형 능력의 함양, 창의성의 계발이 필요하며(김동영외, 1997, p. 44), 이러한 교육은 구성주의가 시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인지적 활동과 정서적 활동이 통합된 종합적인 학습활동으로 학습자의 개성과 사고, 그리고 창조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과로, 교육목표, 즉 전인교육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김용권, 1993).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미술교육은 정형화된 기계적인 인간 형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생각이나 감정 등의 내면세계를 조형세계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미술교육학자들의 견해에서 미술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미적 경험을 구성하여 미적 안목의 육성을 도모하고,

둘째, 새로운 미적 지식과 정보의 획득으로 재구성된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고등정신기능을 기르며,

셋째, 각자가 가진 개성이나 창의적인 능력 등이 미술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대한 발현되게 하고,

넷째, 미적 감수성의 함양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미적체험에서 학습문제를 이끌어 내어 학습자의 정서를 표현재료나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표현한다. 학습자의 선행 경험을 중시하고 학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의 맥락과 관련된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과분석적인 내용이 아닌, 타 교과와의 통합적인 면에서도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와 학습자간, 동료학습자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으로 근접발달영역에서 학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학습문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부터 작품을 표상하는 단계까지 수업의 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인 면과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 오늘날 미술교육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고유한 관점에서 자신이 이해한대로 나타내기를 기대하며, 작가의 의미를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각자가 해석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학습문제를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내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활동중심, 과정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 삶 속에서 미적인 것을 즐기고 선택하여 자신의 인식체계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지미순, 2003).

미술이란 무엇인지,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에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미술을 한다는 것은 미적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단지 미적 경험을 해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미술적인 세계에서 미술적 대상들을 가지고 개인적이고 선택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교육은 미술이라는 교과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skill)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자기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고,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 자신

의 인식 체계를 넓혀가야 한다. 그리고 미술은 일반적인 언어를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로서 자신이 인식한 세계, 환경, 물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따라서 미술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 세계에 대해 스스로가 구성한 의미를 의사소통하는 한 수단으로서 세상을 다루는 효율적인 도구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미술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창의성 중심의 흐름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온 도화 공작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미술교육(이규선, 1994)의 현실에서 미술이 단지 정서적인 활동으로 치부되거나 작품 제작 활동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 주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나. 구성주의적 미술 학습의 원리

구성주의의 인식론과 학습관에 기초한 구성주의적 미술학습의 원리는 학습자 중심의 미술학습, 사고과정을 중시하는 미술학습, 실제적 경험과 관련된 미술학습, 상호작용을 통한 미술학습,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술학습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학습자 중심의 미술학습

구성주의 학습에서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미적 지식이나 미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의미의 능동적 구성자이다. 따라서 미술과 교수학습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교수 체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존재가 된다.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기존의 교사는 미적 정보나 미적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구성주의적 미술학습에서의 교사는 학습자들의 사고를 중시하고 그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미술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안내자의 역할이란 구체적으로 학습자 현재의 수준보다 약간 높으면서도 타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수업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매체, 활동, 질문, 경험 등의 기회를 제공

하여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미술활동 역시 학습자가 중심이며 학습자에게 선택권과 자율권을 부여한다. 학생은 선택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런 과정들이 창의적인 작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수업은 학생의 생활감정의 표출이나 내면의 세계를 꾸밈없이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므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학습을 통해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2) 사고과정을 중시하는 미술학습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인지적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고, 학습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지속적인 재구성 과정으로 기존의 인지구조가 불충분할 때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미술학습에서,

첫 번째로는 인지적 갈등의 조장을 통한 사고과정을 중시하기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기존 인지구조, 혹은 선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하며 반성적 추상(reflective abstraction)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는 경험적 추상화의 결과를 떠올려 그것을 정신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이다.

셋째로는 반성적 추상화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식이 형성되므로 학습자가 어떤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사고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반성적 사고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반복적인 재 경험의 순환적 전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해결해나가는 문제의 이해수준을 깊게 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와 미술학습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습된 내용과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생각하는 미술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3) 실제적 경험과 관련된 미술학습

객관주의에 입각한 교수학습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획득한 본질적이고 이론적 지식으로서, 학습자들은 학자들이 발견하여 구조화해 놓은 지식을 교사의 전달을 통해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식의 활용 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 자체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고 할 때, 이론적 지식의 전달과 수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객관주의 교육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탈 맥락적인 학습은 지식의 불활성을 제기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지식이 활성화되지 않기에 지식교육의 실제성 결여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미술학습은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을 포함한 진정한 현실세계가 포함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학습조직에서도 맥락 중심의 사고를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미술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실제적 성격의 미술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학습에서 구체적 상황에 기반을 둔 실제적 성격의 과제 실행은 기본적으로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4) 상호작용을 통한 미술학습

구성주의를 극단적 상대주의와 구분하는 척도는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다. 상호학습을 통한 협동적 학습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필요로 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자신의 학습이 학습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에게 이익이 되고, 동료의 학습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격려할 때 이루어진다. 상호의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상호의존성, 과제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상호의존성, 역할의 상호의존성, 보상의 상호의존성이 있다.

미술학습에서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에서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주제선정 활동 시 교사의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처럼 교사나 동료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술활동은 나와 다른 사고나 견해와 부딪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반성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

한 반성과정은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단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5)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술학습

Dewey에 의하면 미적 경험의 특성은 지각적 경험으로 완전한 통합성이다. 미술에서의 통합은 미술교과 내의 영역 통합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들 수 있는데, 영역통합은 표현의 경우, 표현으로만 끝내지 않고 감상활동과 연계시킨다든지, 감상학습의 경우도 감상으로 끝내지 않고 감상에서 습득한 미적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여 표현에 연계시키는 통합이 있다.

다른 교과와의 통합은 교과간의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학생의 흥미, 문제, 주제, 특정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통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영역적이며 상호작용적이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학습목표가 학습자의 자율성,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등을 키우는데 있다면 통합적인 미술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술 학습활동을 보다 큰 과제와 연계시키고, 활동내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나 관점을 제공하면서 미적 개념이나 정보들의 상호관련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다. 구성주의가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술학습은 학생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미적 정보를 자신이 선택한 재료와 방법, 양식 등을 통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무엇보다 활발한 사고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개개인의 맥락이 존중되고 중시되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의 필요와 흥미, 경험에 기초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사고활동이 보다 성장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미술교육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개인의 맥락이 중시되고 존중되는 미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미

술교육은 교사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 주도되는 피동적인 학습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러한 수동적인 미술활동에서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등의 맥락이 존중되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 덩어리의 군집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각각의 맥락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환경과 경험 등을 중시하고 존중하여 자신의 표현방법과 재료, 양식 등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탐색하여 선택하며, 이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술학습의 환경적 요소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을 통한 반성적 사고활동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은 사고력을 성장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해답을 가진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소재와 재료, 방법들을 통하여 사고 방향이 한 쪽으로 모아져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은 동일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정해진 방향이나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사고를 모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학습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교화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재료와 방법을 탐색하게 해야 하며 그 외에 더 적합한 방법이나 재료는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반성적 사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또래간 또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나 부모 등의 선행학습자, 또는 비슷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선택과 표현에 대한 반성적 사고과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미적 안목의 성장에 기반을 둔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은 한 사람의 작가를 만들고자 하기보다는 미적 안목을 신장시켜 생활 속에서 보다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며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저절로 형성되거나 또는 선천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교육에 의하여 보다 바람직하게 신장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미술표현활동을 통하여 작가의 작품이나 또래의 작품을 보고, 생각하고, 그 의미에 접근해 봄으로써 아름다움의 요소를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판능력이 형성되며 이는 생활 전반에서 순간 순간 접하게 되는 미적 판단력을 형성하는 중요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한 작품 감상 활동과 교사의 스케

폴딩에 의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많은 작품을 바람직하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학습자에 기초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술학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의 인식 변화이다. 교사가 교수-학습에 임하는 인식이 종래의 교사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공론에 불과하다. 교사 스스로 현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구, 그 변화의 근거가 되는 학문적 이해에 공감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에 기초한 방법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



Ⅲ. 미적 체험 활동의 이해

1. 미적 체험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가. 미적 체험의 의미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은 미학상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의식과 거의 같은 뜻이다. 철학적 미학에서는 미의식이란 말이 심리학적 미학에서 말하는 미적 태도에 있어서의 의식 과정과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적 체험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미적 체험이란 미적 가치의 체험을 의미한다. 즉, 미를 궁극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가치 체험이다(백기수, 1989, p. 35).

한편, 김진엽은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에 대한 미학적 이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미적 체험을 소개한다.

미적 체험이란 개념에서 ‘미적’이란 용어의 영어적 표현은 aesthetic이고, 이 말은 그리스어의 aisthesis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aisthesis라는 말은 감각적 지각(sense perception) 또는 감각적 인식(sensory cognition)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체험’이란 살아있는 유기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부분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때, 미적 체험이라는 말은 미학적 관점에서 감각적 지각 또는 감각적 인식을 통해서 얻게 된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감각적(sensory)이라는 말은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과 연관된다고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적 체험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얻게 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된 체험을 모두 미적 체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된 체험이 미적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미적 태도(aesthetic attitude)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된 체험 중에 미적 태도라는 여과 장치를 거친 체험이 미적 체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적 태도란 어떤 배후의 목적을 지니지 않은 관심으로, 그 대상을 그 자체

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적 태도와 대상 자체에 대한 예민함과 섬세함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미적 체험이 일어나기 위한 대상 자체도 통일성, 다양성, 응집성을 지녀야 미적 체험을 산출하기 쉽다고 설명한다(김진엽, 2001).

또한 미적 체험은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체험과는 다른 응집성과 풍요로움을 우리의 체험에 가져다주며, 우리의 선입견과 전제들에 물음을 제기하여 그것과 대면하도록 만들며, 세계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우리를 개방시켜주는 세계 체험의 한 영역(김향숙, 1999, p. 29)이라고도 한다.

미적 체험이란 말은 일반적인 미에 관련된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얻게 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나 현상을 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되는 총체적인 것 중에서 미의식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나. 미적 체험의 교육적 가치

미적 체험은 오감을 통한 감성 체험이며, 미술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이나 현상을 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되는 총체적인 것 중에서 미의식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미적 체험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난 미술과 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 사회는 보편적 지식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탐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한다. 미술 활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삶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다르게 보고, 느끼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느낌, 상상, 정서, 성격 등을 자유

롭게 나타낼 수 있으며, 미술 교육에 있어서 각자의 미적 체험은 그러한 표현을 하거나 감상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 교육은 ‘미술을 통한 인간 교육’이다. 예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을 도구화하여 인간의 성품과 정서, 그리고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술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미적 체험에 초점이 모아지고, 아름다움을 통한 사람됨에 초점이 모아지며, 아름다움을 통한 사람됨에 의미가 주어진다. 그리고 개인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와 자연에서 그 의미를 찾고 새롭게 바라보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간다. 미술과 교육은 예술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예술적인 측면은 주로 표현이나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측면은 미술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정서성, 창조성 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술 교육은 미술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이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미술의 본질은 미적 체험에 있는데 이는 체험의 주체인 자아가 체험의 대상인 객체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내용이다. 따라서 미술 교육은 미적 체험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표현된 작품에 공감하는 미적 향수에 이르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의 과정이다(임정기·이성도, 1996, pp. 3-4). 이는 미술이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미적 체험과 이해 그리고 제작 이후 작품 감상 등의 과정을 총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적 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미적 체험은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사고를 자아내게 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며,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미적 체험이 주는 교육적 가치는 미술 교과목의 목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미술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미의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제 6차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미술과 생활 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미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적 체험’을 강조하였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형과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

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학습 내용을 미술품 또는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주변과 관련시켜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 자료, 사진, 슬라이드, 작품 등을 이용하여 관찰, 탐색, 비교, 조사, 수집 활동을 통하여 발표하고 문장으로 서술하기와 토론해보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체험과 동기를 부여하여 표현 및 감상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은 미적 안목을 기르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2. 미적 체험 활동의 이해

가. 미적 체험 활동의 필요성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명랑하고 윤택하게 만들려는 의지 및 능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미술과 교육은 미적 교육으로서 미가 존재하는 생활 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술과 교육은 아동들의 경험과 필요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아동들의 생활과 연관 지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서, 개인 및 사회생활과 미술, 민족문화, 세계 문화와 관련된 미술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또한 자연과 관련된 생활 속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자연미와 조형미의 관계, 자연, 조형, 생활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봄으로써 밝고 아름다운 환경,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미적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에 활용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갖도록 한다.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조형의 세계로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로서, 미술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하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다. 또한 변화하는 현대의 생활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여 자신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려는 실천 의지 및 생활 습관을 기르는데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끼는 체험 속에서 미적 감성을 도야하고, 개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조형 감각을 계발하며, 자연 및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아는 안목을 넓혀 주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주변의 조형물이나 자연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여 음미하고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표현으로 연결되는 체험 활동 중심의 미적 탐색 학습이 요망된다. 즉, ‘미적 대상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조형 요소를 발견하고, 미적 감정을 풍부히 하며, 조형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표현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미술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활동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발견하는 미적 체험을 통한 감동이나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다. 학생 자신이 느끼고 발견한 것을 표현할 때 동기유발이 강하게 되어 자발성과 표현욕구가 높아지며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교과는 교과의 특성상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실기과제로 주어진 표현활동뿐만 아니라 미적 체험, 감상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사·탐구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의·토론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미적 체험 활동의 필요성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이나 각종 공예품, 건축물 등 의·식·주의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구성하려는 의지와 미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정서를 풍부하게 하여 미적 대상을 감상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나. 미적 체험 활동의 특징

듀이(Dewey, J. (1934))에 의하면 경험(체험)이란 바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충동과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으로서의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며 이러한 의미의 경험은 교육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 미를 궁극적인 가치내용으로 하는 것이 미적 경험이다. 즉, '미적 경험'이란 이성적 경험이나 과학적 경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미적 대상과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험 즉 대상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술교육을 창작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미적 인식과 비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적 체험 활동과 감상활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미적 체험은 단순히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적 체험을 통한 정서순화, 표현욕구의 강화, 감상을 통한 미적 요소의 발견 등을 통해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 피드백 됨으로써 조형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미적 인식 및 비평능력, 창의력을 높임으로써 미적체험·표현·감상 활동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적 체험활동은 수업 전개 과정의 경우 도입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실물이나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영상자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미적 감동이나 감흥을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또한 미적 체험활동은 주변 환경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그 속에 내재된 조형요소와 원리를 발견하는 활동, 생활 속에서 조형물의 역할과 기능 이해, 문화와 조형의 관계 이해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표현활동 위주의 교수·학습방법에서 벗어나 관찰·조사 및 탐색활동, 보고서작성, 토론활동 등을 통해 성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토의·토론문화, 과제탐구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함양시킬 수 있다.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는 자연과 조형물에 나타난 형과 색의 아름다움과 형식미를 파악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형 활동에 적용시켜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를

이해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자연현상이나 미술품 외에도 의·식·주의 생활 속에서 조형 요소나 원리의 활용이 해당된다.

미적 체험 활동은 표현활동에서 보다 폭넓고 자유로운 발상을 위한 것으로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생활인으로서의 미적인 안목을 함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미적 체험 활동의 특징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미적 체험 활동은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적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갖지 않으며 미적 체험이 제공하는 통찰력, 만족, 즐거움에 가치를 둔다. 삶에 있어 대부분의 경험들은 실용적 가치에 의해 자극 되어지지만 음악이나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실용적 목적을 갖지 않는다. 미적 체험과 일상생활의 경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미적 체험의 비현실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현실적인 이득이 없는 것으로서 그 진가가 있다. 과일이 담긴 그릇을 보는 것이 미학적인 때에는 색채나 과일의 모양을 보고 심사숙고 할 때이고 미학적이 아닐 때에는 배고픈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림이 상기시켜 줄 때이다(호퍼, 1987, p. 53).

미적 체험 활동을 수단과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미술과에서의 미적 체험 활동은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미적 정서를 수반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다른 창조 활동이나 향수 활동의 새로운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타 교과에서는 미적 체험 활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며 다만 각 교과 고유의 성취 목적이나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거나 단지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은 미술과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타 교과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동반자적 위치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적 체험 활동은 지각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지각은 감각적 경험의 결과로써 어떤 대상이나 성질, 혹은 어떤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심상, 혹은 하나의 기억을 초월하는 인식의 상태이다.

미적 체험은 미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미적 인식은 미술지각과 감상에 관련되어 있고 능동적인 지각의 과정이며 개인과 자극적이고 조화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 속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물을 보는 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각을 얻고 생의 즐거움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미술은 대상이나 현상을 보는 일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보고 파악하는 일, 꼭 봄으로써 인식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지각이라 부른다(R. Arnheim, 1996, p.8-11).

이러한 감각적 경험의 결과로서의 지각은 어떤 대상과 인식자를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훌륭한 미술품이나 예술적 활동 속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영역의 대상에서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우리의 시지각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미술 분야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산재하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한 우리의 인식이 시각적 지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각은 이성적 판단을 수반하며 이러한 이성적 판단은 학문의 전 분야에서 일어난다.

셋째, 미적 체험 활동의 특징은 대상과 인식자의 특질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미적 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적 대상은 미적 체험을 고무시킬 수 있는 특질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식자는 대상물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인 양상을 감지하는 능력은 탁월한 능력의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 인종, 성을 초월한다. 단지 예술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받은 자는 더욱 민감하고 깊이 생각하여 심화된 체험을 할 수 있다(이영호, 1994, p.17).

넷째, 미적 체험 활동은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미치 도모노부는 “미는 직접적인 시각으로서 그것이 생생하고 확연히 존재하는 감각, 즉 눈앞에 나타나는 듯한 자명한 감각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상 우리는 꽃을 직접 보고 아름답다고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며, 거기서 반드시 이성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도리어 직접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인 까닭으로, 미

는 다른 가치와는 달리 생생하게 간절히 바라는 현실적인 박력을 가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적 체험은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이거나 2차적인 경험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활동을 요구한다(이영호, 1994, p.10).

다섯째, 미적 체험 활동은 감정을 수반하는 활동의 결과이다. “인간은 감정을 지닌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은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반응들로 충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느낌이나 감정들은 인간의 행위와 존재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감정이 없는 인간 생활을 상상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감정을 수반하는 미적 체험의 특징은 논리적 이성을 요구하는 교과 영역에서 보다 문학이나 예술과 같이 정서를 주로 하는 교과에서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국어, 미술, 음악과 같은 인간의 정서를 주로 하는 교과가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요하는 교과에서 보다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미적 체험 활동의 특징은 지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미적 대상에 대해서 지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대상물을 인지하고 대상물과의 작용을 자신의 과거의 인식경험에 비추어 다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한다. 단순히 풍경을 접했을 때에 미적 체험이라도 인간의 성찰이 가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자연미 감상이라든가 혹은 향수라든가 하는 경우에도 뜻밖에도 인간은 지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今道友信, 1987, p.26-28). 어느 작품의 경우에도,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단계가 없으면 그 작품의 감상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의 벽에 그려져 있는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 「수태고지」를 볼 때, 성모 마리아가 “성신으로 인해 성자를 잉태할지니라”하는 뜻밖의 충격적인 신의 말씀을 가브리엘대천신으로부터 전해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입가에 긴장된 미소를 띠고, 떨리는 듯 두 손을 가슴에 포개 얹어 놓고 있는 모습의 배경을 모른다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지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는 표면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가 이성에 의해 생각해 보았을 때 비로소 역사를 통해 되풀이 되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양심과 희망과 그 힘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나타낼 수 없는 것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미적 체험 활동은 관심의 집중을 수반한다. 어떤 대상물에 대해 미적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명상 숙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미적인 상태는 폐쇄적이고 완벽한 집중의 상태이다. 집중적인 지각적 인식이 요청되고, 미적 대상과 그 안에 내재한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가 주목하는 온전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적 체험은 고도로 대상 지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체험은 복도를 지나면서 그림을 흘깃 보는 정도의 일상적인 태도로써 미술작품에 반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이영호, 1994, p.10).

여덟째, 미적 체험 활동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한다.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개인의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 곧 예술 교육이다.

아홉째, 미적 체험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한 일이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느낌이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곧 미적 체험이다. 미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미적 감동으로 충실 된 모습으로 체험되며, 더구나 그 계기를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근처에 있는 나무 울타리의 하얗은 푸름일지라도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보인다면, 곧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今道友信, 1987, p. 3). 그리고 실제 대상을 미술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소수의 천재적인 전문가의 특권이 아니라 자연을 즐겨보는 건실한 모든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라고 아른하임은 말한다(R. Arnheim, 1996, p.40-50).

끝으로, 미적 체험 활동은 우리 생활을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미술교육은 아름다운 생활을 만든다. 미적 체험으로서 예술은 창작자나 수용자(일반인)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다. 아름다움을 찾아 음(음악)이나, 형, 색(미술)으로 표현하는 쪽은 예술가 그룹이지만 보통사람들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이다. 이 즐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여유 있고 편안하게 하여 자신과 세상을 깨어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창작자보다 수장가, 향수자가 더욱 중요하며 창작자는 수장가에 의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장가나 향수자는 보고 듣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고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이 향수자 계층, 즉 미의 소비자가 넓고 깊을수록 음악과 미술은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예술이 생활 속에 그 의미를 깊게 하는 것이다. 미술교육은 보통사람에게 진정 즐기는 삶을 일깨워주며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술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이해를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주고 생활 속에 아름다움을 심화시킨다. 각각의 존재에 대한 물성의 이해를 통한 개체와 개체의 조화와 질서의 체득은 그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을 물질을 통해서 개성 있고 조화된 모습으로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자연, 인간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성숙시킨다(임정기 · 이성도, 1996, p. 10-11)

이러한 미적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를 둘러싼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되는 총체적인 것 중에서 미의식과 관련된 미적 체험 활동은 대상이 가지는 미적 가치를 주체인 인간이 보다 심도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한다.

따라서 오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적 체험을 통한 미술교육은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간성의 상실, 몰 개성화를 탈피하고 감성을 유지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개인의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시키고, 보다 인간적이고 심미적인 감성을 갖도록 하여 존재의 새로움을 일깨워 줄 것이다.

다. 생활 속의 미적 체험 활동

미적 체험의 대상은 크게 자연미와 조형미를 들 수 있다. 자연미는 자연적 현실의 미이며, 풍경미와 같은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비현실적인 대상의 미뿐만이 아니라, 널리 인간·인생·역사·사회 등을 포함하여, 현실의 생활에서 체험되는 미를 의미하므로 인간미, 역사미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형미는 예술적 소산의 미로서 인간이 예술 의욕에 의해 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창조하려는 의도 하에 자연에서 주어진 소재를 가공 형성함으로써 성립되는 미이다(하재창, 1986, p. 72-73).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미가 존재하는 생활 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넓혀나감으로써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인 및 사회생활과 미술, 민족문화, 세계문화와 관련된 미술로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자연과 관련된 생활 속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자연미와 조형미의 관계 등을 통해 실생활에 미술을 접목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의 특징에 관한 판단력의 근거를 이해하게 되며 미술 교육에서도 아동의 생활 세계에 기초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전성수, 2001, p. 29) 어린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접 적용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미술교육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고등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은 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어려워하고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방을 아름답게 꾸미기, 집안의 가구들을 어울리게 배치하는데 미술을 활용할 수 있

고, 옷을 입을 때의 색의 조화를 생각하고 배색을 맞추고, 물건 하나를 고르는데 미적 안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고 자신만의 미적 성향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

라. 교사의 역할

구성주의를 통한 미적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단지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이 계획한 교수·학습을 분석, 전략, 탐구하여 촉진자, 조언자, 자문자, 나아가 동료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성주의적 미술 학습에서의 교사는 학습자들의 사고를 중시하고 그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안내자 역할이란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발문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문을 갖도록 제시해 주고, 교사나 타인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또는 ICT를 통해 정보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매체, 활동, 질문, 경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기르기 위해 조력자, 격려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카프만이 제시한 미술교사의 자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사는 아동의 능력과 잠재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깨우쳐 주는 눈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미술교사는 학생들이 재빨리 반응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감화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미술교사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예민해야 한다.

넷째, 미술교사는 날카로운 통찰로 이끄는 적절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교과가 대부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가치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미술은 보편성보다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

를 존중하는 교과이다.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표현과 가치의 창조를 지향하며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활동해야 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기능과 미술교수방법론을 갖추어야 한다.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카프만이 제시한 미술교사의 자질과 함께 자아 및 미술지식을 미술교수방법론과 통합할 수 있고 미술 수업의 특성에 맞는 자질이 함께 요구된다.

첫째, 미술 표현은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하나의 가치를 전달하기보다는 학생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므로 미술 교사는 학생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둘째, 미술과는 학생이 직접 활동해야 하는 교과이므로 개방적이고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미술은 시각적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 속에서 환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지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미술은 전문적인 표현 능력이 요구되므로 미술 교사는 미술의 다양한 표현 방법, 재료 등을 알고 이를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화나 조소 등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의 전 영역을 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미술과에서는 이정보다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감성을 길러주는 교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술 교사는 미술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감각을 발달시키며, 그런 활동을 통해 길러진 미적 감각을 생활 속에 활용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사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지도 방안

1. 제 7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가. 미술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분석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연계성을 살린 미술과 교육을 위하여 제시된 미술과의 총괄 목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총괄 목표에는 세 개의 하부 목표가 뒤따르는데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그것이다. 즉,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미적 체험)과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표현),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것(감상)으로 영역을 나누어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미술 교과서의 총괄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난 미술과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형과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표현 영역에서는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모양과 쓸모를 생각하여 만들기, 환경에 필요한 것 등의 주제를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등의 조형요소와 원리에 중점을 두어 다루도록 강조하고, 서예에서는 관본체 점획의 길이 및 방향 등의 기본을 익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감상 영역은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평 능력은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및 조형물 등의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미적 체험 활동 및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 활동에 도움을 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미술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교과 내용은 교과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 활동 내에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지도되도록 하였고, 초등학교 미술과 내용을 초등학교 3, 4학년과 5, 6학년을 함께 묶어서 2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함에 있어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년 간, 학년 내의 이미 학습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학습할 영역을 선택하고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4학년 영역별 교과 내용은 다음 <표VI-1>과 같다(초등학교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2002, pp 8-9).

<표VI-1> 3, 4학년 영역별 미술 교과 내용

영역	학년	3·4학년
미적 체험		(1) 자연미 발견 ◦ 자연에서 아름다움 발견하기 (2) 조형미 발견 ◦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표현		(1) 주제 표현 ◦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2) 표현 방법 ◦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 조형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하기 (4) 표현 재료와 용구 ◦ 재료와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표현하기
감상		(1) 서로의 작품 감상 ◦ 작품을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 가지기 ◦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등에 대한 토론 (2) 미술품 감상 ◦ 우리 고장과 우리나라의 미술품에 흥미와 관심 가지기

제 7차 미술교육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가 미적 체험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3,4,5,6학년) 수준에서의 ‘미적 체험’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하며, 자연과 조형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애호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것은 생활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인지력을 강화시켜 보다 명확하게 미적요소를 관찰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이주연, 2001, p. 66). 자연과 조형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선, 형, 색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연과 조형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삶에 있어서 총체적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미적 태도를 지니고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과 감상이 연계된 활동으로 미술품 생산과 지각, 반성적 사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을 살펴보면 <표VI-2>와 같다.

<표VI-2> 학년별 미적 체험 영역 미술 교과 내용

구분 학년	필수 학습 요소	미술과 내용
3·4 학년	(1)자연미 발견	▶자연에서의 아름다움 발견할 수 있다. ①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②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2)조형미 발견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①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②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5·6 학년	(1)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①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비교한다. ②자연과 조형물의 형과 색에서 변화를 발견한다.
	(2)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①자연의 특징을 살린 조형물을 찾아본다. ②자연과 조형물의 조화를 발견한다.

3·4학년 시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과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면서 사물을 보는 방식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미적 체험 및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발달을 촉진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형과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다.

5·6학년 시기에는 3·4학년 시기보다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미적 지각이 발달하며, 표현이 섬세해 지고 조형의식이 발달하게 되며, 미술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발달한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과 조형물에서 형과 색의 변화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생활과 자연과 조형물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시각 세계에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특히,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학습 내용 범위를 조정하고 학습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며 학생의 학습 성취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적정화한 내용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 구조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위이나 수업의 내용에 따라 세 영역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서의 교육 여건이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등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 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나. 초등학교 4학년 미술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및 학급에서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시간운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초등학교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2002).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미술과 내용을 단위, 학습 제재에 따라 영역별 연간 시간 운영 계획을 <표VI-3>과 같이 재구성

하였다.

<표VI-3> 4학년 미술과 영역별 연간 시간 운영 계획

단 원	시간 배당	학 습 제 재	영역	시간 편성	지도 계획
1. 자연의 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색 살펴보기 ◦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 자연을 주제로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자연의 색 살펴보기
			표현	2	▶ 자연을 주제로 표현하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 움직이 는 선과 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선과 형 찾아보기 ◦ 음악이나 소리를 듣고 선으로 표현하기 ◦ 움직임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여러 가지 선과 형 찾아보기
			표현	2	▶ 음악이나 소리를 듣고, 선으로 표현하기
			감상	2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 상상 의 세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 움직임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표현	2	▶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4. 색의 느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색과 반대색 찾아보기 ◦ 여러 가지 모양 꾸미기 ◦ 느낌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비슷한 색과 반대색 찾아보기
			표현	2	▶ 여러 가지 모양 꾸미기 ▶ 색의 느낌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감상	2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5. 판을 이 용한 표 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칼의 쓰임새 알아보기 ◦ 고무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조각칼의 쓰임새 알아보기
			표현	3	▶ 고무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단 원	시간 배당	학습 제재	영역	시간 편성	지도 계획
6. 판본 체 로 쓰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본체에 관하여 알아보기 ◦ 판본체로 '부모'쓰기 ◦ 판본체로 '우리'쓰기 ◦ 판본체로 '하루'쓰기 ◦ 판본체로 '바다, 소리'쓰기 ◦ 판본체로 '시내, 호수'쓰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1	▶ 판본체로 쓴 작품 살펴보기 ▶ 판본체가 쓰인 작품 감상하기
			표현	6	▶ 판본체 자형을 살펴보고 조형 요소, 원리 찾기 ▶ 판본체로 붓글씨 쓰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7. 조형의 아름다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미술에 관하여 알아보기 ◦ 미술 감상 자료집 만들기 ◦ 감상 자료집 보면서 이야기 하기 	미적 체험	2	▶ 주변의 조형물에 대한 미 적탐색 활동하기 ▶ 내가 알고 있는 작가의 미술작품 소개하기
			표현	1	▶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감 상 자료집 만들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8. 재미 있 는 표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표현 찾아보기 ◦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작품에 나타나 있는 재미 있는 표현 방법에 대해 알 아보기
			표현	3	▶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 로 표현하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9.그릇 만들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감상하기 ◦ 그릇 만드는 방법 알기 ◦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보고 특징을 찾아보기 ▶ 그릇 만드는 방법 알기
			표현	3	▶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만들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0.놀이터 와 공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와 공원에 관하여 알아보기 ◦ 놀이터와 공원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 다양한 놀이터와 공원의 모습에서 조형미 살펴보기
			표현	3	▶ 다양한 재료의 특징을 살 려 놀이터, 공원 꾸미기
			감상	1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단 원	시간 배당	학습 제재	영역	시간 편성	지도 계획
11.마크와 표지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와 표지판 감상하기 ◦ 마크 꾸미기 ◦ 표지판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크와 표지판에 대해 살펴보기
			표현	3	▶마크와 표지판 꾸미기
			감상	1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2.우리 나라 미술품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미술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 감상의 느낌 표현하기 ◦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가 미술품 감상하기 	미적 체험	2	▶작품에 나타나 있는 재미 있는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표현	2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기
			감상	2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계	68			68	

위의 <표VI-3>의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원 중심으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용지도서의 시간 배당은 총 64시간으로 되어 있다. 위의 표는 미술 교과서 미적 체험 영역을 중심으로 단원 내에서 미술 학습 시간을 조정하고 현행 미술과 연간 법정 시수인 6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교과서를 보면 학습 내용을 미술품 또는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주변과 관련시켜 동기 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도입부는 미적 체험 활동으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표현 활동을 제시하여 내용에 따라서 한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의도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시하여 선택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개부분으로 즉 표현 활동으로 진행된다. 학습 활동 결과를 학습 목표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을 정리 활동 즉 감상활동과 결부시켰다(교사용 지도서, 2002). 라는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술과 교과서에서의 미적 체험 영역은 표현의 전단계의 활동으로서 ‘표현 전 감상 활동’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도입부인 미적 체험 활동에서는 미술품 또는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주변과 관련시켜 동기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은 창의적인 표현력을 신장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적 체험이 갖는 고유한 교육적 의의 외에도 각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에 따라 다른 영역과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4학년 미술과의 미적 체험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를 보면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미 발견과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조형미 발견으로 되어 있다. 두 가지 학습 요소 모두 자연과 조형물에서 선과 형의 아름다움, 색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미와 조형미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면 <표VI-4>와 같다.

<표VI-4> 미적 체험 영역의 자연미와 조형미 분석

단 원	학 습 제 재	자 연 미	조 형 미
1. 자연의 색	자연의 색 살펴보기	○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
2. 움직이는 선과 형	여러 가지 선과 형 찾아보기	○	○
3. 상상의 세계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
4. 색의 느낌	비슷한 색과 반대색 찾아보기	○	○
5. 판을 이용한 표현	조각칼의 쓰임새 알아보기		○
6. 판본체로 쓰기	판본체에 관하여 알아보기		○
7. 조형의 아름다움	생활 속의 미술에 관하여 알아보기	○	○
8. 재미있는 표현	재미있는 표현 찾아보기		○
9. 그릇 만들기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감상하기		○
10. 놀이터와 공원	놀이터와 공원에 대하여 알아보기	○	○
11. 마크와 표지판	마크와 표지판 감상하기		○
12. 우리나라 미술품	우리나라의 미술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

위의 <표VI-4>는 학습 체제에 따라 중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분리 한 것으로 자연미나 조형미를 따로 분리하여 지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2. 움직이는 선과 형 단원에서 여러 가지 선과 형을 찾아보는 활동인 경우 자연 속에서 선과 형을 찾는 활동과 조형물 속에서 선과 형을 찾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체험 영역만을 독자적으로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단원인 경우 표현과 감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미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지도 방향

미술과는 구성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주의를 통한 예술작품의 만남은 다양한 미적 체험의 경험을 확대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지식과 타인을 만나면서 예술과 세계에 관한 넓은 시각을 갖게 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습된 지식이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을 중시하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과 학습방법을 제시하여 미적 체험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되고자 한다.

구성주의를 통한 미적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이 계획한 교수·학습을 분석, 전략, 탐구하여 조력자, 격려자, 촉매자, 동료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적 체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미적 체험 활동이라야 한다.

구성주의 학습에서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미적 지식이나 미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의미의 능동적 구성자다. 따라서 미적 체험 활동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는 교수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존재가 된다.

둘째, 탐구에 바탕을 둔 미적 체험 활동이라야 한다.

미술작품과의 감정소통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꾸준한 학습에 의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식의 요소가 요구된다. 우리는 작품을 볼 때 모호함이나 확실함, 지식적인 것과 비 지식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 사이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또한, 불명료함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알고 싶고, 작품 이미지가 감추고 있는 것을 더 명료하게 밝히고 싶어진다.

셋째, 다양한 재료 탐색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들을 구체적인 미술 활동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을 한다면 미적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표현과 감상 영역에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미적 판단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의 구조는 탐색할 수 있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브제 재료가 주는 질감이나 촉감 자체로도 질적 탐색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시각과 촉각을 통한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생활 주변에 있는 재료의 활용을 위한 미적 체험 활동을 <표VI-5>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VI-5> 재료 활용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내 용	체 험 방 법
주변 재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재료를 찾아보기 ◦ 주변 재료들이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는지 찾아보고 탐색하기
관찰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촉각을 이용한 재료의 특징 탐색 ◦ 재료의 특성을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찾아보기
조형 요소를 통한 미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색, 형, 질감 등에 따른 관찰 및 비교활동 ◦ 효과적인 활용 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 탐색 ◦ 대상을 만지고 간단히 조작하는 조형적 활동하기
시각적 사고를 통한 미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물체 파악하기 ◦ 대상을 관찰한 것의 느낌을 간단히 그려보거나 글로 나타내기 ◦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미술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미적 체험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며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과 함께 학습자의 흥미, 관심, 경험 등을 토대로 자연과 조형의 환경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 목표를 중심으로 각 단원의 미적 체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면 <표VI-6>과 같다.

<표VI-6> 미적 체험 영역 학습 요소 분석

단 원 \ 학습요소	선과 형	색	관찰, 발견	이해	분석	적용	발표
1. 자연의 색		○	○		○		○
2. 움직이는 선과 형	○		○	○		○	
3. 상상의 세계				○	○	○	○
4. 색의 느낌		○	○			○	
5. 판을 이용한 표현				○		○	
6. 판본체로 쓰기				○		○	
7. 조형의 아름다움	○	○		○	○		○
8. 재미있는 표현			○	○		○	○
9. 그릇 만들기			○	○		○	
10. 놀이터와 공원						○	
11. 마크와 표지판		○		○	○	○	
12. 우리나라 미술품	○	○	○	○	○		○

가.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자료

미술은 다른 교과에 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교육적 기능을 미적 체험 활동에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해진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생활 속의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미적 대상의 가치를 이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인 학습자들이 간접적인 시지각의 환경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미적 대상의 가치를 이해하며 적극적인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이나 각종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술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전 과제를 통해 개인의 미적 체험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미술 정보의 경험으로 폭넓은 미적 체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미적 체험은 광범위한 인류 문화유산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애호하는 마음을 가진다. 인터넷과 각종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 미적 대상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학년 미술 교과서 단원과 학습 내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표VI-7>과 같이 마련하였다.

<표VI-7>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자료

단 원	학 습 내 용	교과서 작품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1. 자연의 색	▶자연의 색 살펴보기 ◦ 색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참고 작품을 보면서 계절의 특징과 색의 느낌 이야기하기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하기	◦ 춘난수조(김은호) ◦ 지중해의 풍경(뒤피) ◦ 추경(김은호) ◦ 잔 다르크의 거리 (위트릴로) ◦ 봄 풍경 ◦ 여름날의 계곡 ◦ 봄 풍경 가을 풍경 ◦ 봄 풍경 겨울 풍경 ◦ 봄 풍경 눈 쌓인 호수	◦ 한라산의 사계절 사진 ◦ 봄(새싹, 보리밭) ◦ 유채꽃 잔치 사진 ◦ 벚꽃 잔치 사진 ◦ 여름(바다의 모습) ◦ 가을(억새꽃 잔치) ◦ 제주의 돌담과 눈 ◦ 사계절 사진 ◦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 산이나 들의 들꽃 ◦ 명화 감상

단 원	학 습 내 용	교과서 작품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2. 움직이는 선과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선과 형 찾아보기 ◦ 선과 형의 움직임 발견하기 -곡선의 움직임 -선의 교차와 반복에 의한 리듬감 -사용한 선과 형의 공통적인 느낌 찾기 -선과 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꽃놀이 ◦ 수렴도(고구려) ◦ 끝없는 리듬(들로네) ◦ 꽃창살(조선시대) ◦ 여(김찬식) ◦ 학생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뭇가지의 다양한 선 ◦ 모래사장의 물결선 ◦ 돌의 단면 ◦ 나뭇잎의 선 ◦ 떡살과 조각보 ◦ 칸딘스키의 『구성8』 ◦ 마티스의 『춤』 ◦ 흑 백, 적의 구성 (몬드리안) ◦ 발레(이종각)
3. 상상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 작품을 보며 상상의 세계 이야기 나누기 ◦ 작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찾기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마을(샤갈) ◦ 민화(조선시대) ◦ 학생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 ◦ 피레네 성(마그리트) ◦ 기억의 고집(달리) ◦ 운룡도(조선시대) ◦ 샤갈의 『창문 너머 파리의 모습』
4. 색의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슷한 색과 반대색 찾아보기 ◦ 자연의 모습, 조형물, 작품을 보고 배색의 느낌 알아보기 -배색의 특징 -비슷한 색, 반대색의 관계 이해 -색에 따른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의 슬픔(마티스) ◦ 휴식(박수근) ◦ 꽃밭 조경 ◦ 학생작품 -비슷한 색과 반대색으로 무늬 꾸미기 -반대색으로 꾸미기 -비슷한 색으로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청 ◦ 오방색 ◦ 색상환 ◦ 별이 빛나는 밤(고흐) ◦ 밤의 카페(고흐) ◦ 우는 여인(피카소) ◦ 따뜻한 색, 차가운 색을 사용한 실내 디자인
5. 판을 이용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각칼의 쓰임새 알아보기 ◦ 판화의 특징 알기 ◦ 조각칼의 종류와 특징 효과 ◦ 조각칼의 사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칼 사용 효과 (이수희) ◦ 과일과 유리잔 ◦ 학생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만대장경 ◦ 금속활자 ◦ 판화작품 ◦ 판화의 제작과정 ◦ 조각칼의 종류와 특징, 사용법 ◦ 조각칼의 종류에 따른 표현 느낌

단 원	학 습 내 용	교과서 작품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6. 판본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본체에 관하여 알아보기 ◦ 판본체 필법의 특징 ◦ 옛 글씨를 감상하고 옛 글씨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점 ◦ 기필과 수필의 차이점 중심으로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글씨(집자) ◦ 연적(조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인천강지곡 (조선시대) ◦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시대) ◦ 판본체 쓰기 동영상
7. 조형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의 미술에 관하여 알아보기 ◦ 생활 속의 조형물과 미술의 역할 ◦ 감상 자료집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쓰기 ◦ 미술품을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조선시대) ◦ 조각공원 ◦ 벽화 ◦ 미술 감상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하르방(제주) ◦ 하회탈(안동) ◦ 조각공원의 모습 ◦ 거리의 벽화 ◦ 월드컵 경기장 조형물 ◦ 파워포인트 미술 감상 자료집
8. 재미있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있는 표현 찾아보기 ◦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방법 알기 ◦ 작품의 특징 비교 -주제, 짜임, 표현 의도, 표현 방법 탐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 다리 ◦ 장영실(백남준) ◦ 앞사귀의 버릇(에른스트) ◦ 학생작품 -프로타주, 콜라주 마블링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쇠라) ◦ 폴라주, 프로타주, 점묘법으로 표현한 작품 ◦ 스크래치, 모자이크, 번지기, 불기, 데칼코마니, 실물 찍기, 스텐실 등 참고작품
9. 그릇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감상하기 ◦ 옛날과 오늘날의 그릇 비교하여 특징 찾기 ◦ 색, 디자인, 모양, 쓰임, 만드는 방법 ◦ 아름다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자(조선시대) ◦ 현대 그릇 ◦ 화분 ◦ 학생작품 -빛어서 만들기 -말아서 만들기 -판으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시대별 도자기 ◦ 빗살무늬토기(신석기) ◦ 토우 장식 항아리 ◦ 기마 인물형 토기(신라시대) ◦ 상감청자(고려시대) ◦ 오늘날의 그릇 사진

단 원	학 습 내 용	교과서 작품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10. 놀이터와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터와 공원에 대하여 알아보기 ◦ 놀이터와 공원에 있는 시설의 기능과 아름다움 ◦ 환경보존과 공원 가꾸기의 관계 ◦ 전체적인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터 ◦ 공원 ◦ 학생협동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스케치 -놀이터, 공원 -어린이 놀이터 -놀이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공원 ◦ 놀이터 ◦ 공원 ◦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통적 건축물 ◦ 한국의 정원 사진 (여러 나라의 정원)
11. 마크와 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크와 표지판 감상하기 ◦ 마크와 표지판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 ◦ 종류별로 분류하고 아름다운 점, 특징, 목적에 대해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표지판 ◦ 휴게소 표지판 ◦ 우체국 마크 ◦ 학생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부, 미술부, 방송부 마크 -교실 표지판 -도서관 안내 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에 실린 자료 ◦ 신문, 잡지에 있는 다양한 마크 ◦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크와 표지판 모음 파워포인트 자료
12. 우리나라 미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미술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 우리나라 미술품의 종류와 조형적 특징 ◦ 보고 느낀 점 ◦ 우리나라 미술품에 관한 긍지와 애호하려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마도(신라시대) ◦ 수박과 들쥐 (신라임당) ◦ 석굴암 본존상 (통일신라시대) ◦ 금관(신라시대) ◦ 고려청자(고려시대) ◦ 경복궁 근정전(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름도(서당) ◦ 초충도(신사임당) ◦ 몽유도원도(안견) ◦ 세한도(김정희) ◦ 승례문(조선시대) ◦ 금관(신라시대) ◦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박물관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중앙 박물관 http://www.museum.go.kr/ ◦ 국립 민속 박물관 http://www.nfm.go.kr/ ◦ 국립 제주 박물관 http://jeju.museum.go.kr/ ◦ 국립 경주 박물관 http://www.namu.museum.go.kr/~kyoungju/ ◦ 국립 공주 박물관 http://www.namu.museum.go.kr/~kongju/ ◦ 국립 광주 박물관 http://www.namu.museum.go.kr/~kwangju/ ◦ 국립 부여 박물관 http://www.namu.museum.go.kr/~puyo/ ◦ 국립 현대 미술관 http://www.moca.go.kr/ ◦ 호암 미술관 http://www.hoammuseum.org/ ◦ 서울시립미술관 http://seoulmoa.seoul.go.kr/ ◦ 삼성 미술관 http://leelum.samsungfoundation.org/ 		

나. 미적 체험 탐색 활동 내용

미적 체험 영역을 지도할 때 유의할 점을 보면, 현장 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다양한 매체나 체험 활동을 통하여 관찰, 탐색, 비교, 조사, 수집 등의 활동을 제공하고 발표, 토론하게 함으로써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미적 체험 탐색을 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표VI-8>과 같이 구분하고, 4학년 미술교과 단원과 연관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표VI-8> 미적 체험 탐색 활동 내용

구 분	미적 체험 탐색 활동 내용
1. 자연미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 동식물, 구름, 하늘, 바위, 계곡 등 자연물 감상하기 ◦ 식물, 동물 등 자연에서 형과 색의 아름다움 찾기 ◦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이해하고 느낌 발표
2. 조형미의 아름다움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 조소, 전통 공예, 디자인에서 조형미를 발견하고 느낌 발표하기
3. 자연과 조형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조소, 건축, 조형물 등을 통해 조화, 부조화의 이유 알아보기
4. 아름다움의 원리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 요소와 원리(균형, 비례, 율동, 동세, 양감, 질감 등)의 개념 이해하기 ◦ 조형 작품에 표현된 조형미를 발견하고 느낌 발표하기
5. 생활에 활용된 미술의 예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예, 산업디자인 제품, 건축물의 사진 자료, 엽서, 광고, 화보, 실내 환경 꾸미기 등 ◦ 의·식·주생활과 관련하여 활용된 경우 찾아보기
6. 현대 생활과 미술과의 관계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환경을 이루는 미적 요소 찾아보기 ◦ 생활 속의 환경 조사하기
7. 생활 속에 조형미의 활용 특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등의 적용 특징 알아보기 ◦ 기념탑, 조형물, 교량 등의 조형미 조사하여 발표하기
8. 미술과 문화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색의 상징(문화적 상징, 오방색)이해하기 ◦ 우리나라 여러 종류의 미술품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 문화로서의 미술 이해하기

다. 미적 체험 활동 학습 형태

미적 체험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미적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미술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철학, 사회, 과학, 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미적 체험과 관련하여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자연미와 조형미와의 관계, 자연과 조형물과 생활과의 관계 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미적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도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적 발견이 중심이 되는 미적 체험 활동으로 표현이나 감상과는 공유하지 않은 분리된 단위 시간의 순수한 시지각적 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자연의 변화나 움직이는 선과 형, 색의 느낌과 같은 단원은 자연의 색이나 선, 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데 학습의 중점을 둔다.

둘째, 감상 활동이 중심이 되는 미적 체험 활동이다. 미적 체험은 표현과 감상 영역과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미적 체험과 학습 활동이 유사한 감상 활동을 통해 미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4학년 미술과 3단원 ‘상상의 세계’는 사물의 작품이나 우리나라의 민화 등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를 탐색한다.

셋째, 표현 전 단계 활동으로서의 미적 체험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미술 수업에서 미적 체험을 통한 탐색은 표현 전 단계로서 발상과 구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표현 활동을 위한 미적 체험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4학년 미술과 5단원 ‘판을 이용한 표현’이나 8단원 ‘재미있는 표현’에서도 단위 시간에 다양한 표현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표현 전 단계로서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위와 같이 미적 체험 활동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도할 때에 학습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의 미적 형태 지각하기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 등의 자연물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형과 색의 아름다움이나 구조를 발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비 모양에서 대칭의 아름다움을, 벌집의 모양에서 육각형의 구조를, 큰 구슬우렁이에서는 나선형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물을 관찰하면서도 세심한 관찰력으로 대상의 특징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형과 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자연의 미적 형태를 수용하여 조형물 제작하기

미술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말과 같이 자연을 통해서 얻은 미적 형태를 수용하여 자연물의 형과 색에서 작품의 소재를 얻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무당벌레를 보고 철사와 종이 등을 이용하여 입체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무당벌레의 형태와 무늬를 응용하여 쇼핑백을 만들기도 한다.

3) 자연의 미적 특성을 지각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자연미를 발견할 수 있는 미술품과 비교하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자연에서 얻은 미적 체험을 작품에 활용한 예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표현한 작품이나 현대의 작가들 또는 사람들이 생활의 필요에 의해 제작한 생활용품 등을 감상하면서 자연미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형화 되었으며 생활에 활용되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화가인 단원은 우리나라 산수에서 얻은 감동을 수목의 다양한 농담과 필선으로 표현하였고, 사찰의 꽃 창살 무늬나 경북 궁 궁궐 담장의 무늬에서도 자연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자연의 미적 특성을 지각하고 이를 이용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미적 특성 비교 감상하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과 색에서 미적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활동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 감상하여 표현상의 차이나 미적 특성을 감상하고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비 등은 옛날부터 현대까지 자주 작품의 소재가 되어 왔다. 조선시대 나비무늬, 수무늬 보자기와 현대의 타피스트리 작품, 건칠 기법으로 제작한 가리개 등에서 같은 소재를 취했으면서도 작가의 표현 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라. 미적 체험 활동의 평가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 1)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2)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 3)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4)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 5) 평가 계획을 세울 때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 6) 평가 결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서술하여 제시하고,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한다.
- 7) 각 평가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미적체험 : 관찰력, 이해, 적용, 발표력, 태도 등
 - 나) 표현 : 표현력, 상상력, 관찰력, 재료 및 용구의 선택과 활용,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이해의 적용, 태도 등
 - 다) 감상 :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판단력, 발표력, 태도 등이다.

미적경험의 성장은 결과로써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미적 경험의 교육적 성장에 대한 증거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과정에 대한 집념, 몰두, 향유 그 자체에서 찾아도 충분하다(이정아, 1997, p. 95).라고 하였다. 미술교육에 구성주의적 접근을 하였을 때 학습에 대한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 미적 체험은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하며 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미적체험 평가는 학습자들의 미술 발달 단계에 유의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내용에 대한 관찰력, 이해, 적용, 발표력, 태도 등을 탐

구법, 조사법, 수집법,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포트폴리오, 연구 보고서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3.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수업의 실제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미술과 교육과정 및 미술과 수업에서의 미적 체험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미술과 수업 모형을 알아보고 구성주의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을 위한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가. 미술과 수업 계획 및 과정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 되도록 하며, 흥미, 발달 단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 행사나 계절을 고려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하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의 활용, 다양한 발상지도,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을 살린 지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전체적인 교수·학습 방향은 총론 및 미술과 각론의 교육 철학, 교육 목표, 교육 내용에 기초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매체, 교육 여건, 학습자 상황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는데 있으며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한 미술과 수업의 계획 및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 단계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체험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 하도록 유도 한다. 자연물이나 미술품을 감상할 때 유의점이나 감상의 관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관찰지나 감상지를 구상해 보도록 한다.

▶ 전개 단계

감상 관점에 유의하면서 자연물이나 조형물 등 주변 환경에서 체험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미술품의 표현 내용과 방법 및 재료와 용구,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찾아내고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관찰지, 감상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양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감상 능력 및 태도와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 정리 단계

학습자들이 기록한 관찰지, 감상지 또는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제출하게 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평가서를 활용하거나 또는 수업을 기록한 자료를 보며 토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사들이 전통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단계로 미술과의 각 영역의 활동 내용에 따라 적절한 하위 활동을 선정하여 전개해야 될 것이다.

나.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탐색

미술과의 내용영역에 따라 미적체험중심 학습모형과 표현중심 학습모형, 감상중심 학습모형으로 크게 나누어 적용할 수 있으며 표현중심 학습모형은 수업의 목표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수업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부산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미술과 ICT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에 제시된 미술과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보았다.

1)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이해

가) 개념

미적 체험 모형은 학습자들이 주변의 모든 대상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미적 체험 활동과 주변 세계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쉽게 유발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미적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미술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적 체험과 표현, 감상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 영향을 주어 학습의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수업 모형이다.

나) 특성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하며, 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학습을 통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미적 체험 활동과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간접적인 미적 체험을 통하여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

다) 교수-학습 단계

<표VI-9> 교수-학습 단계

단계(과정)	주요 활동	본시 교수·학습 과정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과제 및 준비물 확인 •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하기 • 학습 목표 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 • 공부할 문제 파악하기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 탐색 관점 분석 • 간접적인 미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과제 확인하기 • 관찰 및 토의 방법 알아보기 • 관찰 및 미적 체험 관점 이야기하기 (자연미, 조형미)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 활동 • 미적 가치와 미적 요소 발견 • 표현 활동을 위한 기초 이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 조형물 관찰하고 이야기하기 • 자연물, 조형물의 내용, 방법, 재료와 용구, 조형 요소와 원리 찾아 비교 설명하기 • 특징 있는 표현 찾기 • 관찰기록, 보고서 작성하기 • 발표하기, 토론하기
정착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 발견 및 이해 • 표현 활동을 위한 발상 및 구상 • 아이디어 재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작품 제작 시 활용할 점 찾기 • 표현할 주제 생각하기 • 표현 방법 생각하기 • 준비물 탐색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예고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학습 과제 안내

라) 적용 가능한 학습 영역

학습 목표에서 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 받음으로써 정서가 풍부해지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학습 내용에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으며, 자연과 조형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 3학년과 4학년의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형과 색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활동에서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을 통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체제

<표VI-10>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체제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준비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관련 경험 말하기 • 학습 목표 설명하기
전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지 구상하기 • 관찰 관점 생각하기 • 체험 발표 또는 토론하기 • 관찰 관점 제시하기(자연미, 조형미)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 조형물 관찰하고 이야기하기 • 자연물 조형물의 내용, 방법, 재료와 용구, 조형요소와 원리 찾아 비교 설명하기 • 특징 있는 표현 찾기 • 자기 작품 제작 시 활용할 점 찾기
정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지 및 보고서 작성하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 자기 평가, 상호 평가 • 예습과제

가) 문제 인식

이 단계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습할 목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서로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교사는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여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나) 탐색

관찰 단계를 위하여 관찰할 내용에 대한 관찰 관점을 생각하여 관찰지를 구상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자연물이나 조형물에서 미적 요소를 토론하고 제시한 참고 작품의 내용,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 관찰할 점을 탐색한다.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다) 관찰

앞 단계에서 정한 관찰 관점에 의하여 주어진 참고 자료를 관찰하는 단계로 일상생활과 현장 학습 등을 통하여 얻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미적 가치와 미적 요소를 발견한다. 이 단계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연물, 조형물 등의 내용, 제작 방법,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표현 영역에서 자신의 작품에 활용할 점을 찾을 수 있다.

라) 정리

수업의 첫 단계에서 생각하였던 점과 수업 과정 중에서 얻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여 생각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를 관찰지나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학습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교사는 토론 과정을 보면서 수업 시간을 통하여 얻은 학습 내용을 반성하게 하고 이해시켜 학습자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미적 체험을 지니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에서 학습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문제인식단계에서는 아동 경험 중심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형물들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단계로 학습자의 경험을 끌어내어 자신의 학습할 문제에 대해 개별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탐색과 관찰 단계에서는 자연물과 조형물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의 모습에서

관찰할 감상 관점을 알고, 자연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색깔과 형태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자연과 조형물의 어울림을 살펴 생활환경과 관련된 자연미를 발견하게 한다.

정리 단계는 적용·발전의 단계라 볼 수 있으며 자연과 조형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과 방법을 알고 구체적 실천 방법을 깨닫게 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구성주의적 수업 모형

윌러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에 의한 창의적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적용한 일반적인 수업 과정으로 다인수 학급에서 소집단 구성을 이용한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 <표VI-11> 과 같다(장영식, 1998)

<표VI-11> 다인수 학급에서 소집단 구성을 이용한 수업 모형

단 계	과 정	학 습 활 동	비 고
계 획	제 재 선정	-교육과정 -표현단계에 맞는 제재 선정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여 주제 선정	미술사 미학(참고 작품 분석)
	표 현 계획 수립	-관련 작품 감상을 통한 미의식 형성 -표현 계획 수립 -슬라이드=참고작품 감상 -미적 원리 분석 -주제 설정	
준 비		-주변 자료 -표현 재료 준비	
제 작 과정	발상 구상 표현 수정 보완	-아이디어 스케치 -개인별 아이디어 수집 -재구성하여 밑그림 완성 -다양한 재료와 밑그림을 살려 학습(개별, 협동) -보완 수정 완성 -표현	작품 제작 단계
감 상	미 학 비평	-자타의 작품 분석 -완성 작품의 감상 -미적 원리 발견 -작품의 분석 감상	미술 비평 단계

류재만(2001)은 ‘구성주의 초등미술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초등 학교 미술학습모형을 주제탐색 학습모형과 통합미술 학습모형, 감상 학습모형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주제탐색 학습모형’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욕구를 존중하여 학생의 선택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의 협의를 통한 학습 재제가 제시되면 학생들은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세부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탐색하고, 표현 재료와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모형이다.

‘통합미술 학습모형’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토대로 고안한 것으로 통합적 안목 육성과 협동성을 양성하는데 강조점을 둔 모형이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안목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력 육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모형은 주제중심 학습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토의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세부적인 학습 주제를 택해서 그 주제를 협동 활동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형이다.

‘감상 학습모형’은 작품 감상의 관점을 이해하고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미적 안목 육성에 강조점을 둔 ‘대화학습방법’과 비판력과 판단력을 길러 미술 비평 능력의 육성을 중시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비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평학습방법’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감상 학습모형의 한 갈래로 제시한 대화학습모형의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류재만, 2001, pp.108-115)

▶감상 대상 선정 : 학습의 방향을 안내하고 가급적 학생들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작품 분석 :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게 하고 작품 제작의 재료나 기법, 조형요소나 원리를 찾아본다. 조형요소는 형태나 크기, 색상, 공간, 질감, 운동감 등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분석하도록 한다.

▶주제 찾기 : 작품 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즉, 주제를 학생들이 읽어 내는 과정이다.

▶가치 판단 :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선호도와 나름의 안목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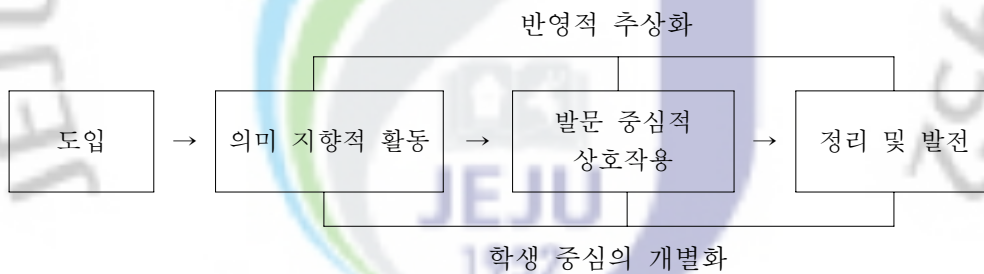
▶생각 넓히기 : 조형 요소의 재구성과 표현기법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조형요소 구성의 재구성은 작품의 감상을 통해 작품 속의 조형요소(크기, 형태, 색상, 질감, 공간, 부피 등)를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변화시켜 표현해보는 것이다.

▶반성 : 감상 내용과 감상 과정에 대해 자신의 감상 태도나 참여 정도를 되돌아보고, 교사나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 감상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박영배에 의하면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을 위한 원리는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 의미 지향적 활동의 원리,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 등 4가지로 보고 이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입체적이고 생동적인 수업이 된다는 수업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김소영, 1998, p.25) 이 모형교수, 학습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거시적 모형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표VI-12> 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VI-12> 박영배의 구성주의적 수업 모형



박영배의 교수, 학습모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인데, 이것은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의 차와 개성의 차를 인지하고, 학생 개개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개인의 능력 차로서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교수, 학습을 의미한다.

둘째, 의미 지향적 활동인데, 이것은 지식이 자주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아동 개개인에 의해 독립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교수, 학습에 참여하는 다른 아동과의 지켜야 할 약속이나 협정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아동 개개인에게 그 지식이 공통 주관적으로 의미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교수, 학습을 의미한다.

셋째, 발문(跋文) 중심적 상호작용인데, 이것은 교사의 발문을 통해 아동과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때 교사의 발문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아동 스스로 미적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자극을 주는 조언이어야 한다.

넷째, 반영적 추상화 원리인데, 이것은 미적 지식 구성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인 것이다. 즉 경험의 추상화 결과를 떠올리고, 그것을 정신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표상의 단계를 거치며 표상한 것의 강도를 비교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각 단계는 서로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평면적 수업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생동적인 수업이어야 한다.

라. 구성주의적 접근의 미적 체험 수업 모형 구안

미술과 수업 모형은 수업의 영역, 내용 및 주제, 학습자의 특성, 공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수업 모형들을 적절히 배합하거나 재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미술과 수업 모형은 단원이나 영역 등 학습할 내용에 따라, 혹은 학생의 수준, 교사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과 구성주의적 수업모형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구성주의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개별 활동, 소집단 활동, 협동학습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적 체험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관심, 흥미에 따라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미 전수해야 할 구체화되고 구조화된 지식이란 없다는 전제하에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수자로서가 아니고, 학생들 개개인이 지닌 문화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서로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는 개개인의 경험적 기술과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그들의 목소리와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 학습 결과를 유도해 주

는 것이다(강인애, 1997).

미적 체험을 위해 학습 모형을 제시하면 <표VI-13>과 같다.

<표VI-13> 미적 체험 활동 수업 모형



마. 구성주의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중심 수업 모형 적용

4학년 미술과의 미적 체험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를 보면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미 발견과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조형미 발견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시지각적 직관에 의존하여 관찰과 발견 중심의 미적 발견 학습이 중심이 되는 미적 체험 활동과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적 체험의 영역을 넓혀가는 단원에서 미적 체험 영역 지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단원: 1. 자연의 색(1-2/4)

▷ 제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색 살펴보기

▷ 제재 선정의 이유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제재는 미적 체험 영역 중심 학습 활동 전개로 자연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재이다.

참고 작품 감상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변화가 표현의 주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연과 조형 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직접 자연을 주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자연 환경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야외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학생들이 계절에 경험과 관찰 체험 학습을 통해 발표하거나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의한다.

▷ 수업 목표

주변의 자연과 미술 작품을 관찰하여 계절 변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 사전 학습 계획

◆ 교사

- 사전에 학교 주변의 식물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되는 모습에 관심을 갖게 한다.
- 계절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VCR자료 및 설명 자료를 준비한다.

- 사계절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 준비(비발디의 사계)
- 학생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계절의 변화 사진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사전에 찾아둔다.
- 소집단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준비(도화지, 풀, 학습지 등)

◆ 학생

- 사계절과 관련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한다.
- 계절과 관련한 행사 사진 또는 자신의 경험들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표VI-14> 자연미 교수·학습 과정안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준비 및 문제과악	▶우리나라의 특징 중 자연과 관련하여 알아보기	▷우리나라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자연과 관련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자연이 아름답다. 화려한 금수강산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좋아하는 계절 알아보기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봄-딱딱한 나뭇가지에서 새눈이 나온다. 예쁜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뜻하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여름-숲이 무성해지고 나무가 쭉쭉 자란다.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며, 놀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여름방학을 하고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학습문제 확인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알아보자.
탐색 (미적발견 추구)	▶개별 목표 정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로 개별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학습지에 정리하기 개별목표-주변의 자연을 관찰하여 봄(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좋아하는 계절별 모둠 구성하기	▷좋아하는 계절별 분단 및 3-4인 1모둠으로 모여 자리 정리하기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p>탐색 (미적발견 추구)</p> <p>관찰 (미적 가치와 미적 요소발견)</p>	<p>▶계절에 따른 특징과 자연의 색 알기</p> <p>▶계절의 변화에 따른 색의 느낌 및 계절의 특징 알기</p> <p>▶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한 자연의 색 체험하기</p>	<p>▷모둠에서 토의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계절의 색 정리하기</p> <p>▷계절의 변화를 찍은 사진자료를 보고 색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기</p> <p>▷각자 준비해 온 사진을 계절별로 분류한 후 모둠별 계절에 따른 사진이나 그림을 도화지에 붙이기</p> <p>▷각 모둠별 계절의 특징과 계절의 느낌이 나는 색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 나누기</p> <p>봄의 느낌이 나는 색: 새싹의 연두색, 나뭇잎의 연초록, 목련꽃의 하얀색, 유채꽃과 개나리의 노란색, 벚꽃의 연분홍, 진달래와 철쭉의 분홍색 등이 있다.</p> <p>여름의 느낌이 나는 색: 파란 바다, 잎이 무성해진 나뭇잎의 진한 녹색, 뜨거운 느낌이 나는 태양의 붉은색, 여름 하늘의 흰 뭉게구름, 하얀색의 옷차림 등에서 색을 찾을 수 있다.</p> <p>가을 느낌이 나는 색: 은행나무의 노란색, 단풍나무의 붉은색, 낙엽의 갈색, 오름에 있는 억새의 갈색과 은색, 벼의 황금색, 파란 하늘 등이 있다.</p> <p>겨울 느낌이 나는 색: 흰 눈, 앙상한 나뭇가지의 갈색, 동백나무의 붉은 동백꽃,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털옷의 갈색과 회색 등을 찾아볼 수 있다.</p> <p>▷활동1: VCR을 시청하면서 계절의 특징과 자연의 변화 모습 알기</p> <p>▷활동2: 사계절을 표현한 음악(비발디의 사계)을 들으며 영상자료(곤충, 열대어, 들꽃 등 자연의 색의 아름다움 느끼기)</p> <p>▷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한 우리 고장의 계절별 축제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경험을 되돌아보기</p> <p>▷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발표하기</p> <p>-자연의 색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며, 물감이나 크레파스 등 인공의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다양한 색이 많아서 신기하고 놀랍다.</p>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p>정리 (미적 발견 적용)</p>	<p>▶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미술 작품 관찰하기</p> <p>▶학습내용 정리하기</p> <p>▶평가하기</p> <p>▶차시 학습 안내</p>	<p>▷미술 작품을 관찰하여 사계절 변화의 특징을 [미술-미적 체험 활동지] 에 각자 정리한 후 모둠원들과 이야기 나누기</p> <p>-미술 작품: 춘난수조, 지중해의 풍경, 추경, 잔 다르크의 거리</p> <p>-어떤 계절을 표현하였나요?</p> <p>-작품을 그린 작가는 누구인가요?</p> <p>-그림에 사용된 재료는 무엇인가요?</p> <p>-작품에 사용된 색은 어떤 색인가요?</p> <p>-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을 무엇인가요?</p> <p>-나의 경험(체험)과 관련된 색은 무엇인가요?</p> <p>-작품에서 바꾸어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p> <p>-작품을 보고 새롭게 찾아낸 자연의 색이 있나요?</p> <p>▷자연의 색이 나타나게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미술 작품 구상하기</p> <p>▶ 내가 좋아하는 계절 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계절의 특징을 색의 변화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생각해보기</p> <p>▶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했던 일(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을 중심으로 장면 생각하기</p> <p>▶ 구상한 장면을 계절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사용하고 싶은 색은 무엇인가?</p> <p>▶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상한 것을 글로 쓰거나 스케치한 작품 계획서를 친구들에게 발표한다.</p> <p>▷계절에 따른 특징과 자연의 색을 알 수 있는가?</p> <p>▷자연을 주제로 표현하기</p> <p>-계절의 특징이 나타나게 표현하기</p> <p>-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기</p> <p>-계절의 느낌이 나타나게 표현하기</p> <p>▶ 위와 같은 학습 내용을 안내하면서 작품 계획서의 주제에 알맞은 표현 방법을 선택하고 준비물을 잘 갖추도록 한다.</p>

●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색 ●

4학년 반 이름()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표 하고 이유를 생각하고 말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2. 개별 목표 정하여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절의 특징 정리하기

▶ 개별 목표 -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여 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1. 좋아하는 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2. 봄의 색깔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에 가서 자주색 철쭉을 보았던 일 • 길가에 피어있는 유채꽃의 아름다움 • 담 옆에 피어있던 개나리 • 학교 화단에 피어있는 분홍빛 진달래 꽃 • 집 뜰에 피어있는 하얀 목련꽃 • 파릇파릇 돌아난 연초록의 여린 새싹 • 가로수 길가의 분홍빛 벚꽃과 새싹이 돌아나는 모습 • 엄마와 함께 벚꽃놀이에서 본 연분홍빛 꽃 • 사라봉에 운동 갔다 보았던 나뭇가지의 잎
3. 봄과 관련하여 내가 보았던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홍, 연분홍, 자주, 노랑, 연초록, 초록, 하얀색 등
4. 봄과 관련해서 아름다웠던 장소와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봉 - 나무에 연한 연두색 새눈의 모습들과 벚꽃의 화사함 - 따스함과 생명의 신비로움
5. 이미지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기

3. 좋아하는 계절이 같은 친구끼리 모둠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정리한 생각 발표하기
- 친구들과 토의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계절의 색 정리하기

[그림 VI-1]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색 학습지

●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

4학년 반 이름()

☞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듯이 자연도 계절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대상의 느낌을 살려 표현하였는지 빈칸에 적어 보세요.

작품명				
관찰내용	춘난수조	지중해의 풍경	추경	잔 다르크의 거리
1. 무엇을 그렸나요? (소재)				
2. 어떤 계절을 나타내었나요?				
3. 사용한 색은 무엇인가요?				
4. 무엇으로 그렸나요? (재료)				
5. 작품을 본 느낌은 어떤가요?				
6. 작가는 누구인가요?				
7. 나의 경험과 관련된 색은 무엇인가요?				
8. 작품에서 바꾸어 그리거나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그림 VI-2]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 학습지



[그림 VI-3] 춘난수조-노수현
www.edunet4u.net



[그림 VI-4] 지중해의 풍경-뒤피
www.edunet4u.net



[그림 VI-5] 추경-김은호
www.edunet4u.net



[그림 VI-6] 잔 다크의 거리
-위트릴로 www.edunet4u.net



[그림 VI-7] 제주의 봄 유채꽃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8] 제주의 여름 바다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9] 여름 한라산 계곡
<http://cafe.daum.net/gooac>



[그림 VI-10] 여름 한라산
<http://cafe.daum.net/gooac>



[그림 VI-11] 제주의 가을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12] 경복궁의 가을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13] 겨울 한라산
<http://cafe.daum.net/gooac>



[그림 VI-14] 벌레를 물고 있는 까치
<http://cafe.naver.com/dm8866>

▶ 단원: 2. 움직이는 선과 형(1-2/6)

▷ 제재: 여러 가지 선과 형 찾아보기

▷ 제재 선정의 이유

이 단원은 교육 과정상의 학습 요소인 조형 요소 중에서 선과 형의 변화를 관찰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먼저, 선과 형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주변 사물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선과 형의 변화를 이해한 후, 음악이나 소리의 느낌을 선과 형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 간단한 형의 배열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동물이나 인물의 동작을 평면으로 표현하거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인물의 움직임을 입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 목표

생활 주변이나 미술 작품에서 다양한 선과 형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 사전 학습 계획

◆ 교사

- 선과 형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참고 작품, 사진 자료를 준비한다.
- 자연물·조형물의 사진 자료

◆ 학생

- 자연물, 조형물, 거리 풍경 등을 사진기로 찍어 오거나 사진 자료를 준비한다.

▷ 4학년이 알아야 할 표현 영역 중 조형 요소로는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등과 서예에서의 점획의 길이와 방향 등이 있다. 2단원 ‘움직이는 선과 형’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과 형이라는 조형 요소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조형의 기본 단위이면서 주제가 되는 점, 선, 면으로 구성된 자연물과 조형물의 선과 형에서부터 점차 확대하여 아름다움과 변화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과 형이 주는 다양한 느낌을 체험 시킨다. 이 수업을 할 때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생생한 실물 자료와 함께 참고작품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표 VI-15> 조형미 교수·학습 과정안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p>준비 및 문제파악</p> <p>탐색 (미적발견 추구)</p>	<p>▶동기유발하기</p> <p>▶학습문제 확인</p> <p>▶관찰활동을 통해 선과 형의 움직임 발견하기</p> <p>▶미술작품을 통해 선과 형의 움직임 발견하기</p> <p>▶선과 형의 움직임 발견하기</p>	<p>▷큰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불꽃놀이 보았던 경험 이야기 나누기</p> <p>▶불꽃들의 움직임이나 형태는 어떠했나요? -방사형으로 비 오듯 자유롭게 불빛이 뿌려진다. -둥글거나 별모양 등 다양한 모습</p> <p>▶불꽃놀이에서 볼 수 있는 선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자유로운 곡선의 움직임</p> <p>▷생활주변이나 미술작품에서 다양한 선과 형의 움직임을 찾아보자.</p> <p>▷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선과 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수평선, 차도의 중앙선, 횡단보도의 선, 나무줄기의 굽고 가는 선, 자동차의 곡선, 칠판의 수직선 등. -바퀴의 둥근 모양, 안내판의 세모 모양, 나무줄기의 둥근기둥모양, 사람 그림자의 형태 등</p> <p>▷ 『끝없는 리듬』, 『수렵도』 작품 감상하기</p> <p>▶감상관점 알기 -무엇을 표현한 작품인가? -어떤 선과 형을 사용하였는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p> <p>▶감상관점 알고 작품 모듈별로 감상 학습지 하기 -작품에서 선과 형 찾기 -선과 형의 움직임 찾기 -작품을 본 느낌을 이야기 나누고 표현하기</p> <p>▶다른 작품 보여주고 작품에 얽힌 간단한 일화를 들려주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p> <p>▷ 모듈별로 생활주변과 미술작품에서 선과 형</p> <p>▶각자 준비해 온 사진이나 그림 자료 분류하기</p>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p>관찰 (미적 가치와 미적 요소발견)</p>	<p>▶체험 활동을 통해 선과 형의 움직임 느껴보기</p> <p>▶선과 형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하기</p>	<p>-발견된 선, 형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기 -관찰 학습지의 작품이나 사진에서 선과 형을 찾아 보고 공통되는 느낌을 기록하기</p> <p>▷선과 형의 움직임 표현해 보기 ▶각 개인마다 모루, 긴 고무줄을 이용하여 직선과 곡선의 형태 만들기 -촉감을 이용해 여러 가지 방향의 변화가 있는 선으로 손을 이동하면서 느껴보기 -발견된 선 이야기하기</p> <p>▷『선과 형』역할 놀이하기 ▶선과 형의 움직임을 역할 물리로 표현하기 -신체를 이용해 직선, 곡선이 되어 움직여보기 *로봇처럼 직선으로 팔과 다리의 움직임 활동 *무용할 때의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 표현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선과 형이 되어보기 *직선, 곡선, 지그재그선, 사선, 꼬불꼬불한 선 등 *원, 네모, 세모 모양 만들어 움직여보기</p> <p>▷모둠별로 학습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관찰한 선의 종류와 느낌 *직선-단순하다. 딱딱하다. 수직선-남성적, 긴장감, 엄숙하다. 수평선-여성적, 안정감, 넓고 평화롭다. 사선-불안, 방향, 변화, 움직임이 있다. *곡선-부드럽다. 화려하다, 율동적이다. 자유롭다 *선의 굵기 굵은 선-힘차다. 둔하다. 무겁다 가는 선-날카롭다, 예민하다. *선들은 형태를 나타내거나 윤곽을 나타낸다. -관찰한 형의 종류와 느낌 *원, 네모, 세모, 마름모, 둥근기둥 모양이 있으며 형태에 따라 부드럽게, 거칠게, 딱딱하게, 굴러가는 느낌을 준다.</p>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정리 (미적 발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및 체험활동을 통해 찾아낸 선과 형의 움직임과 느낌에 대하여 발표하기 ▶ 선과 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정리하기 ▶ 평가하기 ▶ 차시 학습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활동한 자료를 가지고 종합하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점과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하기 ▷ 선과 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선과 형이 있으며 점이 선을 이루고, 선이 면을 이루고, 면이 모여 형태를 이루고 있음 - 선에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 곡선, 지그재그선, 꼬불꼬불한 선들이 있으며 선마다 느낌이 다르다. - 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원모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으로 물체의 모습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조형물에서 선과 형을 찾을 수 있다.(학습지) 미적 체험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관찰) ▷ 음악이나 소리를 듣고 선으로 표현하기

㉠ 「끝없는 리듬」, 「수렵도」 감상 ㉡

4학년 반 이름()

◆ 작품을 잘 관찰하여 물음에 답을 적어 보세요.

1. 수렵도는 무엇을 하는 것을 그린 그림인가요?

()

2. 수렵도를 본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한지 다음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썩썩하다. 활기차다. 고요하다. 움직이는 것 같다. 힘차다

()

3. 들로네의 작품 「끝없는 리듬」 어떤 선과 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나요?

(선- 형-)





4. 「끝없는 리듬」을 본 느낌은 어떠한가요?

()





◆ 「수렵도」와 「끝없는 리듬」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선과 형태를 찾아 그려 보세요.

구 분	선 1952	형(형태)
수렵도		
끝없는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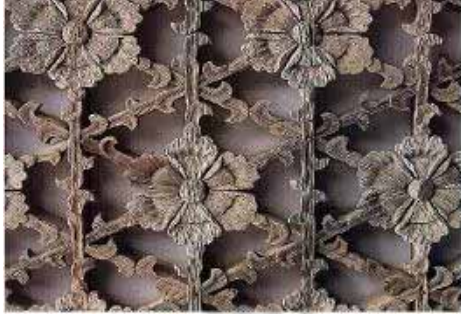
[그림 VI-15] 작품 감상 학습지

2. 움직이는 선과 형 (관찰 학습지)		4학년 반 번
		이름
주 제 : 생활주변과 미술작품에서 내가 찾은 선과 형		
그림 자료	선 과 형	느낌
 <p>보자기</p>		
 <p>여아 돌복</p>		
 <p>나뭇가지</p>		
 <p>새끼줄감기</p>		

[그림 VI-16] 생활주변에서 찾은 선과 형 관찰 학습지

2. 움직이는 선과 형 (관찰 학습지)		4학년 반 번
		이름
주 제 : 생활주변과 미술작품에서 내가 찾은 선과 형		
그림 자료	선 과 형	느낌
 <p>구성-몬드리안</p>		
 <p>모빌-알렉산더 콜더</p>		
 <p>자동차가 다니는 풍경 -장육진</p>		
 <p>연속된 하루-뒤뷔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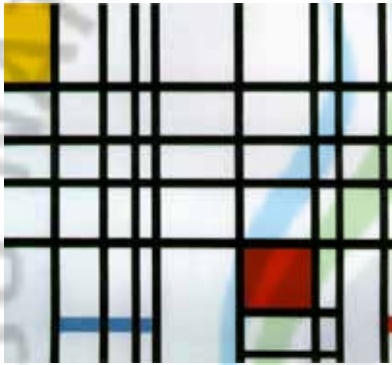
[그림VI-17] 미술작품에서 찾은 선과 형 관찰 학습지



[그림 VI-18] 내소사 대웅보전 꽃창살
<http://blog.naver.com/snk8513?Redirect>



[그림 VI-19] 구성8-간딘스키
<http://blog.naver.com/eight23/50027938856>



[그림 VI-20] 흑,백,적의구성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htm?uid=ejkpro&bno=39358&nid=7793



[그림 VI-21] 제주 절물의 숲길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22] 불꽃축제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23] 서귀포 바다
<http://cafe.naver.com/dm8866>



[그림 VI-24] 수렵도-고구려
www.edunet4u.net



[그림 VI-25] 연속된 하루-뒤비페
교과서 도판



[그림 VI-26] 돌의 단면



[그림 VI-27] 라일리 작품



[그림 VI-28] 나뭇가지의 선



[그림 VI-29] 끝없는 리듬-들로네
<http://cafe.naver.com/khu2jo>

▶ 단원: 3. 상상의 세계(1-2/6)

▷ 제재: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 제재 선정의 이유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꿈, 환상, 공상의 세계로 끌어 들여 그들만의 조형 언어로 해석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도, 형태의 변형 등을 통해 상상력을 증진 시키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주어야 한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풍부한 자료 제시가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의 개성적인 발상이나 표현 방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아울러, 학생이 주제가 된, 발달 수준에 맞고 미적 체험 활동이 반영된 질 높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사의 창의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 수업 목표

작품 감상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폭넓게 이해한다.

▷ 사전 학습 계획

◆ 교사

-우리나라 민화집, 작품 화보,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준비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거나 학습에 유용한 웹사이트를 사전에 찾아둔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준비한다.

◆ 학생

-상상의 세계가 표현된 작품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하여 스크랩해온다.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p>관찰 (미적 가치와 미적 요소발견)</p>	<p>▶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화 감상하기</p> <p>▶교과서의 작품 『나와 마을』 감상하기</p> <p>▶샤갈의 작품 세계 알아보기</p> <p>▶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 발표하기</p>	<p>▶민화의 특징 알기 - 주제 및 소재: 사군자, 꽃, 신성시 되는 동물, 벌레, 가축, 물고기, 돌, 사람 등 -특성: 주술적 신앙이 반영되어 있으며 실용성이 강조된다. 많은 상징적 도상들이 내포되어 있다.</p> <p>▷여러 가지 다른 민화 작품 감상하기 -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민화를 중심으로 보여준다.</p> <p>▷샤갈의 작품 세계 알아보기 ▶작품을 보면서 미적 체험 학습지의 내용을 스스로 해결해 본다. ▶전체적으로 샤갈의 작품 『나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조형 요소 -주제 찾기 -표현 방법 -표현 기법과 느낌 나누기 -작가 샤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고 다른 작품들을 감상한다.</p> <p>▷샤갈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기 -샤갈의 작품 세계에 대한 내용을 아동 수준에 맞게 소개하기 -작품 감상하는 방법 알아보기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 외국의 여러 화가(달리, 미로, 마그리트 등)의 작품 감상하기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로 꾸며보기 *간단하게 이야기를 꾸며보고, 발표한다.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찾아본다.</p> <p>▷지금까지 감상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다.</p>

모형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정리 (미적 발견 적용)	<p>▶내가 표현하고 싶은 상상의 세계 구상하기</p> <p>▶내가 표현하고 싶은 상상의 세계 구상하기</p> <p>▶상상의 세계 구상한 내용 발표하기</p> <p>▶과제 파악 및 차시 학습안내</p>	<p>▷학생들이 준비한 자료 중에서 발표하기 -재미있게 상상되어진 부분, 상상이 잘 나타난 부분 찾기 -독특한 표현 기법 및 재료와 용구 찾기</p> <p>▷상상의 세계 표현 주제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소집단별로 생각을 모아 발표하기 -어린이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인이 되는 나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세계를 갈 수 있다면 -상상 속의 동물 -상상 속의 식물 -투명 인간이 된다면 -거꾸로 가는 세상</p> <p>▷주제에 맞는 표현 방법 정하기 -소집단별로 의논하여 평면으로 나타내기는 개인 입체로 나타내기는 협동 작품을 하도록 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이 된 것을 글로 또는 간단한 스케치로 나타내기</p> <p>▷구상한 내용 발표하기 -생각한 주제, 표현 방법 등이 나타나게 발표하기</p> <p>▷작품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며, 주제에 따른 표현 방법 및 효과적인 표현을 위하여 재료 선정을 잘 해 오도록 한다. -다음 미술 시간에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기를 합니다.</p>

3. 상상의 세계 (미적 체험 학습지)	4학년 반 번	
	이름	
<p>1. 화가 샤갈의 작품 『나와 마을』입니다. 샤갈 자신은 스스로를 ‘마술사’라고 말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에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표시 해 보세요. 그리고 작품을 보고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로 꾸며 보세요.</p> <p>*흰 소와 사람의 머리 *젖을 짜는 여인 *농부와 거꾸로 서 있는 여자 *반지 낀 손 *공중에 떠 있는 집들 *은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뭇가지</p>		
	1. 어떤 내용인가요? 주제를 찾아 써 봅시다.	
	2. 작품에 소를 왜 그렸을까요?	
	3. 사용된 재료와 용구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4. 내가 화가라면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요?	
<p>◆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상상의 이야기를 꾸며 볼까요? ◆</p>		
<p>.....</p> <p>.....</p> <p>.....</p> <p>.....</p> <p>.....</p>		

[그림 VI-30] 상상의 세계 미적 체험 학습지



[그림 VI-31] 나와 마을-샤갈
<http://blog.daum.net/english100/9099280>



[그림 VI-32] 창문 너머 파리의 모습
<http://blog.daum.net/english100/9099280>



[그림 VI-33] 꼭예사-샤갈
<http://blog.daum.net/english100/9099280>



[그림 VI-34] 기억의 영속성-달리
<http://cafe.daum.net/koreacalligraphy>



[그림 VI-35] 피레네 성-마그리트
<http://renemagrittegallery.blogspot.com/>



[그림 VI-36] 카탈루냐의 풍경-미로
<http://blog.naver.com/pksuk75?Redirect=Log&logNo=39230085>



[그림 VI-37] 황룡도
<http://www.leemh-minhwa.co.kr/>



[그림 VI-38] 운룡도
<http://blog.naver.com/snk8513?Redirect>



[그림 VI-39] 호작도
<http://www.minwha.co.kr>



[그림 VI-40] 방아 짙는 토끼
<http://www.minwha.co.kr>



[그림 VI-41] 까치 호랑이
<http://www.leemh-minhwa.co.kr/>



[그림 VI-42] 봉황도
<http://www.leemh-minhwa.co.kr/>

V. 결론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식 구조(창작, 미술의 역사, 미학, 미술 비평)의 부분들을 미술 교육에 끌어들인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 미술교육은 미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교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미술교육이 창의성 중심의 흐름에 있으며, 객관주의 학습관에 기초하여 교육방법에서 나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은 어느 특정 사회에 속하며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개인은 본인의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을 가하면서, 주어진 사회현상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간다고 본다.

오늘날 미술교육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 미술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고유한 관점에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나타내기를 기대하며, 작가의 의미를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각자가 해석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학습문제를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내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활동중심, 과정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기존의 교사는 미적 정보나 미적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구성주의적 미술학습에서의 교사는 학습자들의 사고를 중시하고 그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미술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미적 체험과 표현, 감상의 세 가지 영역으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 교과는 서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다는 미술 시간이 일선 현장에서는 표현 중심으로 치우치는 까닭은 미적 체험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미적 체험 영역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며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미적 체험

부분을 소홀히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미적 체험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미술교과 시간에 미적 체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들과 단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고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 지도 방안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의해 출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적 체험의 의의를 살펴 본 후, 초등학교 4학년 미술교과용 도서 분석을 통하여 미적 체험 활동을 유형화하고 단원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였고,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미술과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연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구성주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요인이므로 교사들의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주의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구성주의적 사고의 변화로 학습자의 학습 상황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미술 수업은 분과 적으로 단절되어 수행하는 것보다 단원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하는 것이 유의미한 활동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이나 느낌을 끌어내는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탐색을 통한 미적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 학습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료들의 특성에 따라 미적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의 선택과 기법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이 연계되어 학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적 체험 활동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동학습이 필요

하다. 자신이 가진 대상에 대한 선 개념이 동료나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소집단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관점에서 확대될 수 있다면 미적 체험 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에서 살펴 본 방안 연구와 함께 체계적인 학습계획에 따라 본 연구자가 설계한 수업 과정 안을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검증하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미술교육 방안을 설계하는데 기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교육부. 전개서, p. 18.
- 교육인적자원부(2002). 초등학교 미술과 지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7.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미술과 교과서
- 김삼량(2000).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진엽(2001).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총 제1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백기수(1989). 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정기·이성도(1996). 중등미술과 교육학(1996년 교과교육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 전성수. 생각하게 하는 초등 미술 교육 방안 (서울 : 서울미술교육학회지 11호, 2001). p. 29.
- 하재창(1986). 미학의 제문제. 원광대학교 출판국. pp. 7-73.
- 호퍼, 안미자 옮김(1987).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今道友信, 백기수 옮김(1987). 미론. 정음사
- J. Dewey, 이홍우 옮김(1992).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 R. Arnheim, 김춘일 옮김(1996). 미술과 시지각. 기린원
- Jacqueline G. Brook and Martin G. Brook, *In Search oh Understanding: The Case for Constructivist Classroom*, 추병완·최근순 옮김(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서울:백의

2. 논문

- 김향숙(1999). 미술감상교육의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비평의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재만(2001). 구성주의 초등미술 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지혜(2003). 미학적 접근을 통한 미술감상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설아(2002).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초등 미술과 수업 모형의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주희(2001). 구성주의 교수 학습 이론을 적용한 미술과 교수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1994). 심미적 음악 체험의 본질과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아(1997). 미적경험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접근 미술교육프로그램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숙(1999). 미술교육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훈(2003). 미적 체험의 심화를 위한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탁형수(2004). 미적 체험 활동을 위한 통합적인 미술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태희(2005).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미술 교과와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of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through Constructivist Approach in the Fine Arts Education

Chae, Yu Hee

Major in Elementary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Oh, Jae Hoan

Fine arts is one of subjects aiming at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the basis of the 7th National Fine Arts Curriculum adopts a constructivist viewpoint. Constructivism is a learning theory for creating learner-centered education environment in which learners play self-directed roles in learning and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el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find various methods of teaching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based on the constructivism theory that seeks the creation and reconstruction of new knowledge based on existing learning, and ultimately to enhance students' aesthetic attitude and sense and to build a creative and all-round character through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Aesthetic experience' includes all extensive and comprehensive activities related to aesthetic sense. Art education should provide diverse aesthetic experiences for

finding, expressing and enjoying beauties in daily life. Fine arts should introduce surrounding environments experienced and found in daily life into the class, prepare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photographs, videos, work collections, etc. to stimulate students' interest and induce their learning, and lay various grounds of class for expanding the scope of experiences through observations, inquiries, comparisons, investigations, collections, presentations, writings, discussions, etc.

Thus, for teaching aesthetic experiences, the present study reconstructed the contents of fine arts education for 4th graders by area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 structure of fine arts textbooks, and suggested materials that can utilize multimedia according to the unit and content of learning so that learners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and have wide-range aesthetic experiences, though indirectly. Moreover, in order to design an aesthetic experience class model based on the constructivist approach, we reviewed class models, constructivist class models, etc. develop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llaborative learning can provide learners with many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from various viewpoints through interactions among the learners, and allow them to acquire advanced thinking abilities while learning by themselves. Therefore, the teaching-learning plan proposed in this study was designed in a learner-centered way based on the constructivist learning model.

Fine arts teachers need to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to be of constructivism so that knowledge constructed through art activities can be utilized widely in daily life. By fostering education environment fit for learners' situation of learning, they can carry out art education initiated by learners.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learning programs for various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 as well as multimedia learning materials for indirect experiences effective to students of digital generation.

Keywords: Constructivism, aesthetic experience, aesthetic experiential activities